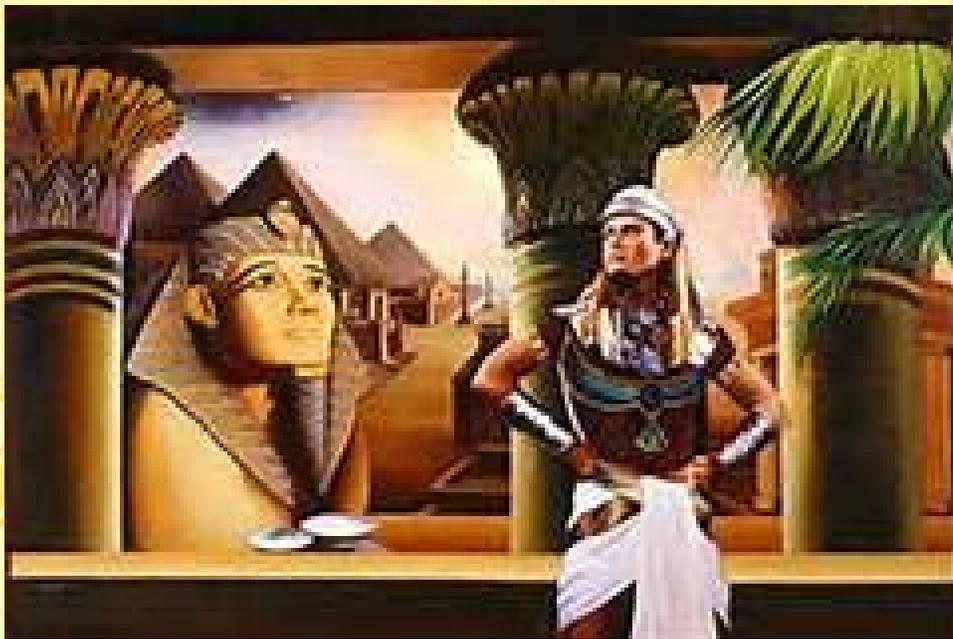


성경 공과

제3권

기초 2반 (Basic Class 2)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3권

Basic Class 2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3권 제2반, junior class만을 가지고 기초2반, Basic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서 이야기의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 (the WORD)은 세 겹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글자는 그릇의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성서 글자를 통해서 발휘되며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을 뵈는 것은 성서 글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마태복음 24장 30절).

중요한 것은 성서를 읽되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야의 권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장).

더욱이 성서 본문을 읽고 해설을 정독한다면 엘리사가 요구한 두 뿔의 영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14절).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다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차례

1. 창조 제 5-6일	창세기 1장 20-31절	9
2. 뱀	창세기 3장	14
3. 무지개	창세기 9장 1-17절	20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24
5.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	28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35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창세기 41장	40
8. 열 가지 재앙	출애굽기 7-10장	46
9. 메추라기와 만나	출애굽기 16장	55
10. 성막	출애굽기 26, 27장	61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66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 3, 4장	72
13.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 9장	77
14. 판관 입다	판관기 11장	82
15. 빼앗긴 레와 돌아온 레	사무엘상 4장 1-11절 5장, 6장 1-16절	87
16.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1-46절	93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사무엘하 6장	99
18. 성전 건축	열왕기상 6장	104
19. 엘리야의 겹옷	열왕기하 2장	109
20. 요시아 왕	열왕기하 22장	113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시편 91편	118
22. 성전에서 솟는 샘	에제키엘 47장 1-12절	123
23. 느부갓네살왕의 꿈	다니엘 2장	127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아모스 8장	133
25. 강림에 대한 예언	말라기 3장	138
26. 세례자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143

27. 주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20절	150
28. 나인 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1-30절	155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누가복음 9장 1-36절	160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42절	167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누가복음 11장	172
32.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179
33. 방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	184
34. 부정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89
35. 종려주일(3)	누가복음 19장	195
36. 부활절(3)	누가복음 24장 1-12절	201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24장 13-53절	206
38. 네 기수들	요한 계시록 6장	211
39. 일곱 쟁 봉인	요한 계시록 8; 9장	215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21장 9-27절	220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6:39

1

창조 제 5-6일

머리말

본과의 서론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이다. 즉,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창조 제1-4일 동안과 제 7일째에 있는 내용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0-31절

1장: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낚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해설

다음의 질문들로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점검해 보자.

- * 성경을 일컫는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 성경은 크게 어떻게 분류되는가?
- *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통합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 *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 * 창세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성경의 첫 번째 절을 기억하는가?
- * 주님께서 창조를 끝내신 날은 몇 째 날인가?
- * 주님은 7일째에 무엇을 하셨는가?
- * 동물과 사람들에 앞서 식물과 나무들이 창조되어야 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 마지막에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본문은 창조 기간 중 제 5-6일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창조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 빛이 주어졌고, 둘째 날에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이 나타나서 푸른 싹이 돋아나도록 하셨으며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도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순서로 땅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되도록 준비하신 것이다. 동물과 사람들이 창조되기 전 그들이 살 땅이 먼저 창조되어야 했던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때문에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올바른 애착들(동물들이 자리 잡고 그분의 진리가 진정한 총명과 지혜(인간들)로 발전되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에덴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땅)이 먼저 다져지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과학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진화론을 믿고 주장한다. 진화론이란 모든 것이 우연히 이뤄졌으며 인간 역시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동물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창조론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새교회의 창조론은 일반적인 창조론과는 상이하다. 새교회의 창조론은 주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창세기 1장에서처럼 말씀만으로 6일이라는 시간 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닌 말씀이라는 그분의 지혜에 의하여 우주에 형성된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그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고 완성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창조, 즉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릇이 그분의 법칙에 따라 진화된 피조물 안에 이뤄 졌다라고 설명한다. 인간을 짐승들과 구별되게 하는 능력 곧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과 본능의 충동들을 이겨내고 옳은 것은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뤄놓으신 그릇인 것이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하여 살기 때문에 진보가 없다. 동물들의 몸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되며 생존을 위해 변하고 발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생존을 위한 것일 뿐 그들의 본능에 따르는 행동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동물들이 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먹이, 안식처 또는 종족 보호를 위한 상호보호 등에 관한 것에 그친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존 본능을 넘는 높은 이상과 바램들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삶과 생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하느님이심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관한 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지상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느님이나 천국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배우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즉 돈이나 명예 혹은 권력이나 쾌락과 같은 것들만을 위해서 산다면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짐승처럼 되어 버린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이러한 이들이 사후에 모여서 사는 곳을 일컬어 지옥이라고 한다.

제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담의 갈빗대로 이브를 창조하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관계로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후에 그를 위해 아내가 창조되었으며 그들 부부가 인류의 기원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말씀은 모두 비유이며 상징이라고 한다. 설사 말씀의 내용 그 자체가 인간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하더라도, 말씀의 모든 단어는 상응으로 이뤄져 있어서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창세기 1장의 「사람(man)」이나 2장의 「아담(adam)」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이다. 즉, 아담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종족적인 면에서 인류라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이 최초로 창조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하나의 종족으로서 창조되었던 것이다. 물론 창조 당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만드셨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창조 5일과 6일째의 내용에 있는 특별한 교훈 중 하나는 인간이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며 무언가 구별되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들을 우리 뜻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한다. 슬기로운 통치자가 권력을 이기적으로 사용치 않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참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슬기로운 통치자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자국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궁리한다. 우리는 이러한 슬기로운 통치자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의 의도를 배우고 이해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현명하게 선용해가자.

질문 정리 (Suggested Questions on the Lesson)

- 1)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 2) 왜 이 책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이 책의 첫 11장까지와 나머지 성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 5)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6) 창세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은 무엇인가?
- 8) 몇 일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 9) 날이란 말은 우리의 24시간을 뜻하는가?
- 10)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1) 해와 달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2)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3)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4)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5)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 16)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17) 태초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가?
- 18)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질문의 답

- 1) 성경 2)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3) 순수한 상징
- 4) 구약과 신약성서 5) 모세 오 경 6) 시작 7) 한 처음에
- 8) 6 9) 아니요 10) 해와 달 그리고 별 11) 하나님에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12) 고기와 새
- 13) 동물 14) 인간 15) 하나님의 모습
- 16)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17) 아니요 18) 하나님이 쉬셨다
- 19) 그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2 뱀

머리말

1권과 2권에서 공부한 창조의 과정을 상기하면서 본과를 시작한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인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심정 상태가 에덴의 동산이며 인간이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했다라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동산의 두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을 상기해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제 3장

3장: 1.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3.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4.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8.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따 먹지 말라고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2.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13.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14.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15.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17.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 먹지 말라고 내가 일찌기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18.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19.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낫을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20.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21.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22.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하시고 23.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24.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 반을 공부하자.

- * 성경 제 1장은 무엇에 관하여 쓰여 있는가?
- * 주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 * 인간은 누구의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는가?
- * 인간은 동물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 * 주님께서 인간에게 땅과 땅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단어 「아담」은 무엇을 뜻하는가?
- *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이었는가?
- *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이브는 무엇을 했는가?
- * 아담은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마치 한 쌍의 남녀인 것처럼 말해지고 있다. 하지만 단어 이브는 히브리어로 “살아있음”란 뜻이다. 그리고 아담이란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태초의 인간들은 하나의 교회 즉 태고 교회를 이룰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어린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진한 것처럼 선하고 순진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했다. 이러한 그들의 심정 상태는 창세기 제 2장에서 언급되는 에덴의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상징되는데, 에덴이란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한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항상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이기적 욕망은 뱀으로 상징되고 있다. 요한 계시록 3장 17-19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니 그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옷이 그들의 육체를 위한 옷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옷 입힐 진리를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는 주님만이 그들에게 진리를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신 뱀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원래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2장 25절)”는 순진한 상태에 있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게 되어 주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는 숨을 수 있었으나 주님으로부터는 숨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들을 더 깊이 공부할 때 불순종으로 야기된 뱀과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혜는 곧 질서로서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은 선악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 역시 창조의 섭리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저주들이 실상 주님으로부터 내려 온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저주란 불순종 자체에 따르는 인과(因果)인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과 자율로서 선택하는 두 가지 능력을 갖고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무한하셔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지만 주님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분께서 보시는 바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 그 이유는 강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고유 능력을 말살시켜 우리를 인간이 아닌 동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함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게 되어 피곤과 곤란이 우리를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 때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자신의 삶의 피곤함과 곤란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야만 했고, 그들의 양식을 주님에게서 받는 대신 스스로 일해서 구해야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 불순종했을 때 다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상식적인 것으로서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한 번 잘못 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옳은 길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더욱 쉽게 느껴져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다. 즉, 어떤 것이든 한 번 습관이 되면 그것을 벗어 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창세기 이후 성경의 이야기들은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후 옳은 길로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만을 고집하는 인류와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계도하시려는 주님의 노력을 보여준다.

본문의 구절들 중에서 특히 두 구절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15절이다. 이 구절은 말씀 중에서 처음 나타나는 “강림에 대한 예언”이다. 이 구절은 장차 뱀이 제안한 것을 행하기를 거절할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며, 그 아이로 인해서 내리막길로만 치닫던 인류의 타락이 멈춰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본문 마지막 구절이다. 거룩들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언급되나 성경 중에서는 본문에 처음 등장한다. 이들은 상징적인 모양으로 실질적인 생물이거나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선함을 보호해주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한다.

이제 잘못된 것을 행하려는 우리의 욕망이 뱀으로 상징되는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저 사람은 돼지 같아.” 또는 “저 사람은 여우같아.”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실제로 돼지나 여우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나 성격이 돼지나 여우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 그러한 표현들을 쓰게 된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태고 시대 사람들은 자연계의 모든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나 특질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연계의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지식을 “상응”이라고 한다. 굳이 직접 뱀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책이나 TV를 통해서 뱀의 행태와 사냥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뱀에 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뱀의 행태(行態)는 우리 안의 낮은 곳에 있는 “감각적”인 본성이 하는 행위와 아주 유사하다. 감각적인 본성은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주님과 하늘에 속한 것을 아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감각적인 것 이상의 것으로 쏠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매려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깊은 속에 숨어서 기어 다니며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자신의 방법만으로 그것이 이뤄짐을 믿도록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감각적인 본성의 시험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어느새 그것에 깊숙이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이브가 간교한 뱀의 말에 경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함을 스스로 다짐하자.

질문 정리

- 1) 성경 첫 장 첫 절을 기억하는가?
- 2) 우리 속의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 3) 영적 의미에서 창세기 제 1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 4)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 5) 첫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6) 지상에서 발달된 첫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7) 첫 교회의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8) 제 1장이 끝난 뒤 첫 남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 9) 어떤 특별한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가?
- 10)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1) 생명나무는 이야기 처음에 동산 어디에 있었는가?
- 12) 첫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 13)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뱀은 무엇인가?
- 15)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6) 이브와 아담은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17) 그 뒤 그들은 왜 부끄러워했는가?
- 18) 그들은 그들의 알몸을 어떻게 가렸는가?
- 19) 불순종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20) 동산은 어떻게 보호 되었는가?
- 21) 주님의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한 처음에... 2)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3) 거듭나는 단계
- 4)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것 5) “땅”을 지배하라 6) 태고 교회
- 7) 에덴 8) 아담과 이브 9)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10)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는 원리 11) 중앙
- 1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 13)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
- 14)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15) 절대로 죽지 않는다.
- 16) 열매를 먹었다 7) 불순종에 대한 죄의식 18) 무화과나무 잎
- 19) 동산에서 추방됨 20) 거룩들 21) 제 15절 참조

3

무 지 개

머리말

뱀의 유혹에 관한 내용은 태고 교회의 타락에 관한 내용과 직결된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타락의 결말인 파멸로부터 남겨져야 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성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9장 1-17절

9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낚아, 온 땅에 가득히 붙어나거라. 2.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5.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양갓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양갓음을 하리라. 6.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7. 너희는 많이 불고 붙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9.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10.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11.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12.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13.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14. 나는 너 뿐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17.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에덴의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 동산에 있던 특별한 두 가지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아담과 이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해진 것은 무엇인가?
- * 무엇이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꾀었는가?
- * 불순종에 대한 그들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 * 노아와 더불어 누가 방주로 들어갔는가? (창세기 7:7)
- * 노아는 그 밖에 무엇을 방주로 들여보냈는가? (창세기 7:8-9)
- *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는가? (창세기 7:12)
- * 홍수가 끝나자 배는 어디에 머물렀는가? (창세기 8:4)
- * 주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 주님은 노아에게 어떤 표시를 주셨는가?
- * 통상적으로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 무지개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불순종은 또 다른 잘못된 행위를 낳아서 결국 악이 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혼은 건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되었다. 해를 지날수록 각 세대는 점점 이기적이며 악해져 가서 더 이상 생명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악이 그들을 파괴시킨 것이다. 이것은 홍수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시험에 저항해서 구원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아라랏(Ararat)이란 히브리어로 높은 땅을 뜻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는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맨 땅이 드러나자 노와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제단은 예배를 상징하는데, 이는 새교회 역시 제단에 항상 성경책을 놓아두는 이유가 된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은택을 입을 때마다 그분께 제단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우리 역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다.

간혹 우리는 물을 뿌릴 때 무지개를 보기도 한다. 무지개는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하여 굴절 반사될 때 형성된다. 즉, 태양에서 오는 빛이 굴절 반사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프리즘도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앞서 우리는 물이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다. 빛 또한 진리를 상징하여 우리가 갑자기 뭔가를 이해하게 될 때 “나는 본다(I see)”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물방울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구절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시게 될 때 빛이 그 구절 안으로 갑자기 비추어져서 무지개가 여러 색깔을 내듯이 주님의 진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발생시킨다.

무지개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험과 고난의 시기에 직면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때에 우리는 그분께 가장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면 그분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표시가 바로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다. 또한 주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인류가 파괴되어야만 할 만큼 극악한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것도 다시는 허용하시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인류가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을 뿐이다. 후에 인류가 다시 약해져서 이와 비슷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주님 자신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안전하게 바른길로 다시 접어들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보여 주셨다.

질문 정리

- 1) 지상의 첫 교회 사람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3)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 4) 선한 나머지의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5) 홍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 6)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 7)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8) 그 약속의 표시는 무엇이었는가?
- 9) 무지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10)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11) 물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2)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3)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태고 교회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14)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 15) 왜 무지개가 노아와 만든 새 언약의 표시가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에덴 2) 태고교회 3) 인간의 불순종 4) 홍수
- 5) 거의 일년(참조 창세기 7:11,8:13) 6) 제단을 쌓다 7) 더 이상 홍수는 없다
- 8) 무지개 9)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비춰져서 10) 폭풍이 끝난 직후
- 11) 진리 12) 지성 안의 지식들 13) 지각 14) 양심
- 15) 새로운 상태를 그려주려고 - 빛이 기억 속에 든 진리를 비춘다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머리말

태고교회와 고대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선하여서 남겨진 노아와 아브람의 부르심을 재조명해본다. 그리고 본문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한다.

성서 본문: 창세기 16장

16장: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래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뜻을 받아들여 기로 하였다. 3.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5. 그러자 사래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7. 야훼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 가에 있었다.

8. 그 천사가 “사래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9.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10. 이렇게 일러 주는 것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11. 야훼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 주셨다. 12.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 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뵈다니!”라고 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14.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15.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은 아브람의 나이 팔십 육 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해설

노아의 시대 후에 사람들은 말씀을 가졌고 그로부터 진리를 배웠다. 스웨덴북은 이를 고대 말씀이라고 부르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책 중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도 언급되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수기 21장 14절과 여호수아 10장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8절을 읽어 보자. 비록 우리는 고대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고대 말씀으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고대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다. 고대 말씀은 모두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언어로 말하고 썼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상응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웠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현명함을 자랑하게 되어 불행이 시작되었다. 결국 스스로의 현명함을 믿고 의지하게 된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필요성 자체를 잊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시대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남아 있는 선한 사람을 모으셔서 또 다시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셔야만 했다. 이 새 교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전 이름은 아브람과 사래였다. 영문과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에 “h”가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h”는 주님의 이름인 여호와에서 온 것으로, h가 그들의 이름에 더해진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창세기 17:1-5, 15절 참조).

사래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대를 잇고자 했다. 그 이유는 당시 아브람과 사래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짐이 잘못된줄 몰랐으며, 사래가 자신이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대를 이을 자식을 갖게 해서 남편을 행복하게 해 주고자 한 아브람에 대한 사랑을 사래에게서 보셨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자식을 잉태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은 거만해져서 사래를 우습게 여겼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예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를 놀리거나 편잔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웃 사랑과 반대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며 남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이지 타인을 해치거나 조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빚어지는 결과를 피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는 비겁한 행위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더욱 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없다. “천사”란 단어는 “전달자”란 뜻이다. 주님께서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어 진실을 말씀해주셨듯이 그분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진실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물론 우리에게 보내진 주님의 직접적인 전달자는 성경이며, 천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며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똑바로 처신할 것을 권고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속의 소리를 양심이라고 부른다. 이 소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들에 기초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준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 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 * 아브람은 왜 이집트로 내려갔었는가?
- * 그는 가나안으로 되돌아 왔을 때 어느 곳에 정착했는가?
- * 그가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 * 사래는 아브람에게 어떻게 아들을 갖게 해 주려고 했는가?
- * 사래의 여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 여종은 어디 출신인가?
- * 하갈이 아이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사래를 어떻게 대했는가?

- * 아브람은 하갈과 사래 중 어느 편을 지지했는가?
- * 아브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 * 주님의 천사는 하갈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 천사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천사는 그녀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가?
- * 하갈은 주님께 순종 했는가?
- *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천사는 그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세 번째 교회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가나안 땅의 어느 방향에서 정착했는가?
- 3)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아브람이 원한 것 중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5) 사래는 남편의 부족함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했는가?
- 6) 하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 7) 그 여자는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8) 왜 하갈은 안주인을 피해 도망갔는가?
- 9) 그녀는 어디로 갔으며, 주님의 천사는 어디서 그녀를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렀는가?
- 11) 천사는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2)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남쪽 3) 사래 4) 아들
- 5)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 6) 이집트 7) 안주인을 업신여겼다

- 8) 박대 받았기 때문 9) 광야, 샘터 10) 되돌아가 순종하라
11)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2) 이스마엘

5

이삭과 리브가

머리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둔다.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사악이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4장

24장: 1.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2.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심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3.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4.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사악의 신부감을 골라 오겠다고 하여라.” 5. 종이 물었다. “신부 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의 옛 고향으로 데려 가도 됩니까?” 6.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7.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 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8. 신부감이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가지만은 말라.” 9.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10.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 갔다. 11.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무렵이었다. 12.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심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13.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심복 이사악의 아내감으로 정해 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15.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16.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17.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 가서 그를 받기며 항아리의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청했다.

18.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19.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 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다. 20. 그리고 병에 남에 있는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길으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22.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 세겔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 주고 다시 십 세겔 가는 금팔찌 두 개를 팔목에 끼워 주고는, 23.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뉘 댁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 갈 만한 방이 없겠소?” 24. 리브가는, “저는 브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하고 대답하고 나서 25.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만한 방도 있습니다.” 26.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27.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고나” 하며 찬양하였다. 28. 아가씨는 뛰어 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 나왔다. 30.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동생 팔에 끼여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 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32.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 왔다. 33.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34.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35.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36. 안주인 사라는 늘그막에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7.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38.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 오너라.’

39.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여쭙었더니

40.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섬겨 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어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 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42.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42.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43.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 달라고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44.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45.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길으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46.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47. 저는 리브가에게 뉘 덤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고리를 걸어 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 주고 나서

48.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덕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 내게 하셨습니다. 49.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길을 찾겠습니다.”

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51.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53.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54. 그와 그의 일행은 융성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56.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 온 목적은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하고 듣지 않았다.

58.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 봅시다.” 58.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하겠습니다.”

59. 그러자 그들은 누이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역조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61.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62. 그 때 이사악은 라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 곳은 내썩땅이었다. 63. 저녁때가 되어 이사악은 들에 바람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 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64.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사악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66.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알이 이사악에게 보고 하였다. 67. 이사악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 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사악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주님께서는 사라를 위해 기적을 베푸셨다. 즉, 사라가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며, 그 의미는 “웃음”이다.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에게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의 21장 6절을 읽어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의 안장을 위해 막벨라 동굴을 샀는데, 그 후 그곳은 아브라함 일족의 가족 매장지로 쓰였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수차례 등장한다.

때가 되자 이삭은 아내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족이었고, 그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우상 숭배자를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주님을 포기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여호와의 예배하는 아내를 맞길 원했다. 이리하여 그는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로 그의 종을 보내 이삭의 신붓감을 고르도록 했던 것이다.

“나홀성”이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이름을 따라 부른 것으로 하란에 있는 마을이다 (창세기 11장 27-32).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향할 때 아버지 데라, 형제 나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과 더불어 출발했는데, 나홀은 중도에서 멈춰 하란 지역에서 정착했다.

당시 사람들은 집에 우물이 없었고 물이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전 마을을 위해 샘을 하나밖에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모든 사람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샘터에 보내야 했고, 퍼 올린 물을 집으로 가져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물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 가축들을 샘터로 몰고 와 물통에 물을 퍼 담아 주어야 할 때도 있었다(창세기 29장 2-3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이름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 이유는 그가 야곱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가족들 역시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랐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믿었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창세기 16장 13-14절을 읽어 보면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eer」란 샘에 대한 히브리어이다. 이 네 글자로 시작되는 성경상의 다른 이름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샘을 의미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해설

다음 질문을 통해서 본 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 그는 어디로 갔는가?
- * 나홀이란 누구인가?
- *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 근처에 왔을 때 어디서 멈췄는가?
- * 그는 이삭에게 적합한 신붓감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 * 주님은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 * 누가 물을 길으러 왔는가?
- * 리브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이삭의 신붓감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 리브가의 할아버지와 그녀의 오빠는 누구인가?
- *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친척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 * 왜 리브가의 친척들은 그녀가 이삭에게 시집가는 것을 기뻐했는가?
- * 그 종은 리브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 * 리브가는 그 종과 함께 기꺼이 떠나고자 했는가?
- * 누가 리브가와 더불어 고향을 떠났는가?
- * 이삭과 리브가는 어디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정했는가?

질문 정리

- 1)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디 출신인가?
- 3) 왜 그는 거룩한 땅에 가게 되었는가?
- 4) 그는 어디서 정착했는가?
- 5)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인가?

- 6) 하갈은 누구인가?
- 7) 아브라함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8) 이사악은 누구의 아들인가?
- 9)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는가?
- 10) 왜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 11) 아브라함은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 12) 보낸 곳은 어디인가?
- 13) 누가 그곳에 정착했었는가?
- 14) 아브라함의 심복은 어디서 멈췄는가?
- 15)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 어떤 징조를 구했는가?
- 16) 누가 그 징조를 성취해 주었는가?
- 17) 리브가는 누구의 손녀인가?
- 18) 왜 그녀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심복과 떠나도록 했는가?
- 19) 이사악은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가?
- 20) 이사악은 그녀에게 만족했는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우르 3) 하느님이 부르셔서 4) 헤브론 5) 사라 6) 사라의 하녀
- 7) 이스마엘 8) 사라와 아브라함 9) 이사악을 놀렸다 10) 우상 숭배자여서
- 11) 심복 12) 하란 13) 아브라함의 형제 14) 샘터에서 15) 물을 길어 올려주는 여인
- 16) 리브가 17) 나홀 18) 그녀를 보내는 것이 하느님이 뜻이라고 믿어서
- 19) 들에서 20) 만족했다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머리말

야곱의 어린 시절과 하란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야곱의 꿈을 간략히 살펴본다.

성서 본문: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29장: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2.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엮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3.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러 냐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 자리에 덮어 두는 것이었다. 4.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5.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말고요.” 6.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7.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 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 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9.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10.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11. 그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12.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카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13.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14.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15.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셔야 되겠느냐? 품삷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16.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17.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18.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칠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작은 딸인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19.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20.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칠 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21.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왔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22.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24. 이 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25.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 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26.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하며 부탁하였다. 27. “초례 기간 한 주일만 채워 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칠 년 동안 내 일을 해 주어야 하네.” 28.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30. 야곱은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칠 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31.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32.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피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33.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34.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들을 셋이나 낳아 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35.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35장: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불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해설

본 반에서는 다시 하란 지역을 살피게 된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사오는 장자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 그 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에사오에게 갈 장자의 축복마저 훔쳤다. 그리하여 야곱은 에사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멀리 달아나야만 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야곱의 꿈 이야기이다. 꿈을 꾸고 난 야곱은 주님께서 자신을 번영시키고 무사히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신다면 그분을 섬기겠노라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하란에 있는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우리 삶은 스스로가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야곱은 힘겨운 고생을 통해서 이를 배워야 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나씩 얻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야곱이 주님 그리고 라반과 흥정하는 속성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뭘가를 얻고자 기대하면서 일해 나갈 때 결과에 실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웃에게 유용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야곱 역시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렸던 것이다. 그는 열 두 아들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Israel)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으로, Israel의 글자 중 끝의 「EL」은 하느님에 대한 히브리 단어이다. 이스라엘이란 “하느님은 승리하신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때로

야곱은 때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차차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성경의 그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린다.

야곱의 열 두 아들 중에서 여섯은 레아가 낳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그리고 즈블룬이 레아의 아들들이며 그녀에게는 디나 라는 딸도 있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며,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가장 어린 두 아들 요셉과 베나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며, 요셉은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마지막 아들이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했고, 가축 때를 다시 얻기 위해 6년을 더 봉사했다. 그 뒤 그는 거룩한 땅으로 귀환했다. 베나민은 베들레헴에서 과히 멀지 않은 거룩한 땅 내에서 태어났다. 창세기 35장 16-20절에서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본문인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의 이름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구절들을 기억해 두면 성경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밧단 아람(창세기 35:26)은 하란이 위치한 평야의 이름이다. 이 지방의 일부는 후에 시리아가 되는데, 아람이란 시리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그곳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강들 사이에”란 뜻이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삼각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야곱은 라반과 더불어 20년을 함께 머물렀다. 하지만 그는 20년 만에 고향에 되돌아 올 때까지도 형 에사오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러한 야곱의 상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사오는 한때 잘못을 행한 야곱을 용서한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그의 귀환을 환영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보기 위해 우선 헤브론으로 갔다. 그때 이삭은 죽음에 임박해 있었다.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49장 28-33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모두가 과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당시 가족 매장지로 쓰기 위해 헛족으로부터 사들인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헬은 베나민이 태어날 때 죽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안장되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멈춘 곳은 어디인가?
- * 그는 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목자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누가 라반의 가축 떼를 몰고 샘에 왔는가?
- *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맞았는가?
- * 라반의 딸은 누구인가?
- * 야곱은 라반의 딸 중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 *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봉사해야 했는가?
- * 7년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속였는가?
- * 라반은 야곱을 속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했는가?

질문 정리

- 1) 야곱은 어떻게 에사오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
- 5)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야곱은 어느 딸을 사랑했는가?
- 7)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딸은 누구인가?
- 8)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는가?
- 9) 그의 아들은 몇 명인가?
- 10)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11) 그가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은 누구인가?
- 12) 베냐민은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질문의 답

- 1) 장자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 2) 에서의 위협
- 3) 하란
- 4) 라반
- 5) 레아와 라헬
- 6) 라헬
- 7) 레아
- 8) 20년
- 9) 열 둘

10) 요셉과 베냐민 11) 요셉 12) 베들레헴 근처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머리말

본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친숙한 말씀이다. 줄거리의 앞뒤를 질문 형식으로 연결하면서 본과를 진행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1장

41장: 1. 그로부터 세월이 이 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2.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고 있었다. 3.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4. 이내 그 살이 찌고 잘 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5.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일곱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이 보였다. 6. 그런데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썩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7. 더우기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8.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미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9. 그 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10. 언젠가 꾀하게

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댁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11.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 그 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13.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14.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 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13.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풀다면서?”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 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17.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강 가에 서 있었다. 18.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는 것이었다. 19. 이어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20. 그런데 여위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 먹는 것이었다. 21.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 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 22.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이삭 일곱이 돌아 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23. 그러나 곧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24.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5.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26.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27.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일곱 암소나 셋바람에 말라비틀어진 일곱 이삭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8.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29. 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30.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31.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

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32.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33. 그러니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오분의 일씩 받아들이도록 조치하십시오. 35.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에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36.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일곱 해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37.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38.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39.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40.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41.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며, 42.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 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43.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렀거라”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44.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45. 파라오는 요셉에게 시브넛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삼십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에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47.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48. 이렇게 에집트 땅에서 칠 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에 갈무리해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49.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50.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다. 51.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하면서 요셉은 만이들의 이름을 므나세라 지었다 52.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53. 이집트 땅에서 칠 년이나 흉년이 들어 흉청됐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54. 요셉이 말한 대로 칠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날로 심해 갔다. 57.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물려들었다.

해설

요셉의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이다. 이집트는 나일 강을 따라 형성된 길고 좁은 독특한 나라다. 그 나라의 비옥한 토지는 나일 강의 양쪽의 계곡을 따라서 있게 된 것이다. 성서 사전에는 이집트에 대하여 “그 나라의 일반적인 형태는 모세의 시대 이래에도 큰 변화를 가질 수 없었다. 전 국토는 아주 비옥하여 놀랄만하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반면 그 양쪽에 모래사막이 있다는 것이다. 그곳의 기후는 연평균 균등하여 건강에 좋은 편이다. 북쪽 해안은 강우량이 적지 않으나 내륙 지방은 아주 적다. 경작지가 강우량에 의존되지 않은 곳은 이집트를 제외하면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나일 강의 범람이 이집트의 국토를 비옥하게 하고 그 나라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일 강의 범람이 축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일 강이 이집트인들에게 고대 유래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온 이유이다. 강물이 점차 불어나서 하지에 최고 수위로 달하고, 그 뒤 2개월 정도 범람이 있게 된다. 가장 높은 수위가 추분쯤에 있고, 범람은 3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기는 놀랄 정도로 건조하며 쾌적한데, 이 특이한 대기 환경은 비문이나 각종 그림으로 된 유적들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기온은 일 년 내내 높은 편으로, 겨울의 가장 추운 때나 오후 그늘진 곳도 화씨 50-60도 정도로 훈훈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집트에 있었던 7년간의 기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집트는 좋은 기후와 높은 생산성 때문에 고대 시대에 그 주변 나라들이 가뭄과 흉년을 겪게 되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관습처럼 행해졌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흉년이 들 경우 그 재난은 주변의 나라들에도 여파를 미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할 교훈은 한 가지이다. 우리는 나쁜 일이 자신에게 발생했을 때 낙담하며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곤란을 되돌릴 방법을 궁리하다가 결국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하며 그 모든 원인이 주님께 있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자신에게 발생했을 때 분개하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상황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역경을 이겨냄으로서 더욱 강건함을 얻게 된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 *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는가?
- *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는가?
- * 누가 보디발에게 요셉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가?
- *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 * 그와 함께 누가 감옥에 있었는가?
- * 그는 그들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가?
- * 그는 술 따르는 시종장에게 무엇을 청했는가?
- * 그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요셉의 청탁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 *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요셉을 상기시켜 주었는가?
- * 왕은 요셉이 경고한 다가 올 재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 누가 왕의 꿈을 마지막으로 해몽했는가?
- * 요셉은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진언했는가?
- * 왜 왕은 요셉에게 그 진언을 수행하라고 했는가?
- * 왕은 어떤 권력을 그에게 주었는가?
- * 왕은 누구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는가?
- * 요셉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요셉은 흉년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질문 정리

- 1)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두 시종장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 3) 왜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했는가?
- 4) 파라오의 두 꿈은 무엇인가?
- 5)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6) 요셉은 파라오에게 무엇을 충고했는가?
- 7) 파라오는 그 충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 8) 파라오는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는가?
- 9) 파라오는 요셉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도록 했는가?
- 10)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11) 요셉은 어떻게 기근을 준비했는가?

질문의 답

- 1)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 2) 꿈을 해석해 주었다
- 3)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 4)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
잘 여문 이삭 일곱-말라비틀어진 이삭 일곱
- 5) 칠 년 풍년과 칠 년 흉년
- 6)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 양식을 저장하라
- 7) 요셉
- 8) 전 국토의 통치자
- 9) 아세넛
- 10) 므나쎄와 에브라임
- 11) 전 국토에 양식을 저장했다

8

열 가지 재앙

머리말

본문의 분량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본문 전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두면 공부하는데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어려운 광야 생활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7-10장

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4.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6.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팔십 세, 아론은 팔십 삼 세였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9.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 들었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12.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13.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15.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17.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18.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 야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권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서는 나무그릇이나 돌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20.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 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21.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22.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23.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 갔다. 24.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25.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칠 일이 지났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7.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28.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 지어 올라 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 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 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술과 떡 반죽 그릇에도 뛰어

들리라. 29.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 오르리라.”

8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쳐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2.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올라 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3.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4.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5.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6.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 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 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9.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 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어 갔다. 10.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11.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13.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의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1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 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7.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에게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쏘고 너의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이집트인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에 천지가 되리라. 18.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등에게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19.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라.’” 20.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술한 등에게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날아들었

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온 땅은 등에 등쌀에 쑥밭이 되었다. 21.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22.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이집트인들이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23.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홀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24.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 하여라”하고 허락을 내렸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에게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 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변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6.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27.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등에게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8.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3. 야훼의 손에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4.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5.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6.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솔 밑에 붙은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9. 그 그을음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가 이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굼아 터지게 되리라.” 10. 그들은 가마솔 밑에서 그을음을 긁어모아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굼아 터지게 되었다. 11. 이집트의 미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미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12. 그러나 야훼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4.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16.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 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18. 내일 이맘때 나는 우박을 역수로 퍼부으리라.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19.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 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였으나 21. 야훼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어라. 그리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야훼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졌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24.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25. 이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야훼께서 옳으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28. 그러나 야훼께 기도해 다오. 하느님께서 발하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견디어 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29.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 드리리라. 30.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느님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 마침 보리는 이삭을 패고 아미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판났으나, 32. 밀과 쌀보리만은 아직 이삭이 펠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아났다. 33.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34.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35.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10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2.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네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5.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나무들도 갇아 먹으리라. 6. 그뿐이랴! 너의 궁궐과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8.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 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딸도 데려 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10.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 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성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11. 어렵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귀를 먹어 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모든 것을 먹어 버리리라.” 13.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샷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샷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14.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 전역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카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귀와 나무

열매를 먹어 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6.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17. 한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18.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19.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바다에 쓸어 넣었다. 20.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싸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들여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25.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6.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27.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28.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다시 내 앞에 얼씬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29.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설

단어 「exodus」는 “나가다”라는 뜻이며, 성경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 광야에서의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는 상당히 친숙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 * 파라오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1:15-16)
- *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는가? (2:1-4)
- * 모세는 누구에게 구해졌는가? (2:5-10)

- * 왜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갔는가? (2:11-14)
- * 그는 어디로 갔는가? (2:15)
- * 모세의 장인은 누구인가? (2:16-21)
- * 주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3:1-6)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3:10)
- * 주님은 모세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 주셨는가? (4:1-5)
- * 주님은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두셨는가? (4:14-17)
- *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가? (5:3)
- * 파라오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5:4-9)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먼저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권능의 이적을 파라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렀고, 그들도 똑같은 이적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한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은 이적과 비슷한 것을 마술로 보여주는 능력이 있었다. 이는 그들이 영이나 마음에 의하여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을 상응(correspond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집트인들에게도 전해 내려왔던 것이다. 또한 상응에 관한 학문은 이집트인들에게 아주 좋아하는 연구 대상이기도 했다. 마술사나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은 이 지식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겉으로만 보고서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적과 유사한 것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아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모세가 행한 이적 중 아주 단순한 것만을 뒤따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세나 아론 그리고 지팡이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내리셨는가를 보여준다. 열 가지 재앙들을 순서대로 간단히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그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다.
2. 수많은 개구리들이 강에서 튀어나와 모든 것에 달려들다.
3. 땅의 먼지가 이 또는 모기로 변하다.

4. 파리 떼(등에 떼)가 땅의 모든 것을 덮다.
5.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다.
6. 모든 사람 곧 마술사까지도 증기에 앓다.
7. 천둥과 우박이 모든 들판을 파괴하다.
8. 메뚜기 떼들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다.
9. 어둠이 온 땅을 3일 동안 덮다.
10. 그 땅의 첫 자식이 한밤중 사이에 죽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 중 어떤 것도 히브리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정도의 재앙들이라면 파라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을 가지 않게 하지 못할 것임에 동의할 것이다. 파라오는 하나의 재앙이 절정에 이르러 견디기 힘들어지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재앙이 멈추면 즉시 바뀌고 말았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실행하여 곤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올바르게 처신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곤경에서 헤어나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곤경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망각하게 된다.

재앙은 지속적으로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다. 파라오의 마술사나 신하들조차도 파라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간청했으나 그의 마음은 너무 완고했다. 이러한 파라오의 모습은 한 번 잘못된 길에 빠진 이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은 결국 그의 고집을 꺾고 말았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을 이집트에서 떠나가도록 허락했다. 비록 한참 후에 그의 마음이 다시 변하여 히브리인들을 홍해까지 추격해 왔지만, 주님의 권능은 파라오의 군대를 또 다른 이적으로 격파해 버렸다. 각 재앙의 깊은 의미는 차후 또 공부하게 될 것이다. 각 재앙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을 거절하고 고집부릴 때 발생하는 것들에 관한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재앙들은 우리의 영혼 속 좋은 것들이 하나씩 파괴되어져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는 때까지 진행된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 2) 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두려워했는가?

- 3)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누구를 들어 세우셨는가?
- 5)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6) 어떤 이적을 행해서 모세가 권능을 가졌음을 입증해 보게 했는가?
- 7) 누가 모세를 도왔는가?
- 8) 모세는 파라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몇 개의 재앙이 일어났는가?
- 11)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3)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14) 미술사들은 어떤 재앙을 흉내 내었는가?

질문의 답

- 1) 이집트에 머물렀다 2)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3)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 4) 모세 5) 이집트에 재앙을 6) 지팡이가 뱀으로 7) 아론
- 8) 백성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9) 재앙으로 위협 10) 10 11) 물이 피로
- 12) 개구리 13) 첫배 새끼가 죽었다 14) 1-2번째 재앙

9

메추라기와 만나

머리말

본장에서 상기해 둘 사항은 과월절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월절이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의 주님의 생애와도 깊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문 전의 이야기들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긴 여행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었던 과정도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6장

16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썩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3.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4.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 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5. 여섯째 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음식을 차려 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이는 것의 곱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7.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나?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 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시오.” 10.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2.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 주어라.” 13.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 안개가 걷힌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나?”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16.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여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들이면 된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었던 것이다. 19.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 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 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21.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들였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22. 여섯째 날에는 일인당 두 오멜씩, 이틀 분을 거두어 들였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23.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굵고 싶은 대로 굵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 두어라.”

24.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26. 옛새 동안은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지마는 이레째는 안식일이니, 이 날에는 거두어 들일 것이 없다.” 27.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레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들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28.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29.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레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30.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었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라.” 33.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34.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관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해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과월절을 마친 후 성급히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안내자를 주셨다. 그것은 낮의 안내를 위해서 보내진 구름 기둥과 밤의 안내를 위해서 보내진 불기둥이었다. 그들은 기둥이 멈출 때는 멈췄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다. 여러분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과 그들을 추격해 온 이집트 군대가 바다를 건너려다 익사당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즉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The Sower」라는 책에서는 그들이 지나간 지역들의 이모저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래 언덕들이 그들과 바다 사이인 오른쪽에 있고, 그들의 왼쪽에는 높다란 바위 언덕들이 벽처럼 서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도 없고 봄철인데도 태양은 매우 뜨거웠다. 이 계절에는 남동풍이 숨 막히는 먼지를 동반하면서 불어서 피부를 타게 만든다. 비는 겨울철에 그 지방에 내리나 갑작스런 홍수로 변하기도 하며 개울물은 즉시 말라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이집트를 나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과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임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불평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지닌 공통적인 경향성 중 하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과거의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회상하면서 불평하는 것이다.

본문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여행에서 먹여 주시는가를 보여준다.

「The Sower」라는 책에 의하면 메추라기는 그 지방에서 사는 새가 아니라고 한다. 메추라기는 봄철에 그 지역을 거쳐 가는 철새일 뿐이다. 즉, 겨울철을 아프리카에서 나고 이동하면서 잠깐 지나치는 것뿐이다. 이 새는 날개가 강하지 못하여 한 번에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잠깐 쉬면서 날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기보다 빵을 더 소원했을지도 모른다. 빵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곡물 가루들로 만들어 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다. 민수기 11장 7-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로 먹을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시편 78편 25절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도 불린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간

만나로 먹여졌다. 여호수아 5장 10-12절을 보면 그들이 거룩한 땅에서 곡식을 발견하자마자 만나가 멈춰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이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 갖가지 준비를 하지만, 인간은 씨와 새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본문에 있는 보다 깊은 교훈은 공부를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 깊게 이해될 것이다. 만나란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또 다른 양식,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표현한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주님으로부터 얻고 그것을 신선할 때 사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한 음식을 한 끼에 다 먹을 수 없고 일주일 분의 양식 또한 하루 동안에 다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 주위에는 일요일 하루 단지 몇 시간만 교회에 출석하면 나머지 날들에는 주님을 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같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고 주님에 관하여 생각하며 장차 닥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선함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간구하는 기도문이 내포하는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질문으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사람들은 특별히 무엇을 갈망했는가?
- * 주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는가?
- * 하루 중 어느 때에 메추라기가 보내졌는가?
- *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모세는 그 빵이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는가?
- * “만나(Manna)”란 무엇을 뜻하는가?
- * 백성들은 하루에 몇 번 그것을 거두러 나갔는가?
- * 그들은 그것을 얼마큼씩 수집했는가?
- * 안식일에는 어떻게 음식을 먹도록 명령되어졌는가?
- *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려고 했던 만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만나는 무엇과 비슷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 * 그 맛은 어떠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무엇이 그들의 여행을 인도했는가?
- 3) 주님께서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그들이 썩은 광야에 접어들자 어떤 불평을 늘어 놓았는가?
- 5) 주님께서서는 저녁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는가?
- 6)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7) 그들은 발견한 것을 어떻게 불렀는가?
- 8) 만나란 무엇을 뜻하는가?
- 9) 만나를 수집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 10) 만나를 수집하는 명령사항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1)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집했는가?
- 12)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 13) 주기도문에서 만나를 상기하게 해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구름(불)기둥 3) 물을 가르심 4) 고기가 없다고 5) 메추라기
- 6) 싸라기 같은 빵 7) 만나 8) 이게 무엇이냐? 9) 매일 한 오멜씩
- 10) 더 수집한 만나는 썩었다 11)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로 수집함 12) 40년
- 13)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0

성막

머리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나이로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 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나이 지역에서 일 년에 관한 것과 그곳에서 이뤄진 것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시나이에서 주어진 법과 예배의 외적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응집시켜 주었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26장, 27장

26장: 1. 내가 살 성막은 피륙 열 폭을 들어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실과 자줏빛 양털과 붉은 빛 양털과 진홍빛 양털로 무늬를 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2. 그 길이는 이십 팔 척, 나비는 사 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3.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4. 나란히 이은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어라. 5. 한 쪽 끝에 붉은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6.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어라. 7.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으로 열 한 폭이 되게 만들어라. 8. 그 열 한 폭은 길이가 삼십 척, 나비가 사 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고 9.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남은 여섯 폭도 따로 이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에 늘어지는 여섯째 폭은 접어 올려라. 10.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11. 그리고 놋쇠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12. 여분으로 남는 천막 반폭은 장막 뒤쪽에 늘어지게 하고 13.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일 척씩 남는 부분은 장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덮게 하여라. 14. 또 주홍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15.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라. 16. 널빤지 길이는 십 척, 나비는 일척 반으로 하고 17.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18.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우고 19. 그 널빤지 스무 장을 세울 밀받침 마흔 개는 은으로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축꽃이를 꽃을 밀받침 두 개를 만들어 놓아라. 20.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워라. 21. 그리고 은으로 밀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다른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아. 22.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빤지 여섯 장을 만들어 세우고 23. 널빤지 두 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뒷면 두 귀통이에 겹세워라. 24.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빤지 두 장을 세워 두 귀통이를 벌려라. 25.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여덟 장에 밀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26. 아카시아나무로 널빤지들을 쉘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 다섯 개, 27. 성막 다른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도 다섯 개, 성막 서쪽인 뒷면 널빤지에도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 중간 가로다지는 널빤지들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마치게 해야 한다. 29.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쉘 널빤지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30.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31.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룩 모양의 무늬를 놓아 가며 휘장을 짜라 32. 이 휘장을 칠 기둥 네 개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33.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34.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35. 휘장 앞에 젓상을 놓고 젓상 맞은편 성막 남쪽 가에 등잔대를

놓고 젓상을 북쪽 가에 놓아라.

36.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짜라. 37.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는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밀받침 다섯 개는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1. 아카시아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오 척, 나비 오 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삼 척으로 하여라. 2. 제단 네 귀퉁이에는 뿔 네 개가 돌아나게 만들고 제단에 놋쇠를 입혀라. 3. 그늘음판이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놋쇠로 만들어라. 4. 제단에 두를 놋 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6.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혀라. 7.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라. 9. 성막을 둘러 쌀 울은 남쪽 오른쪽에 길이 백 척 되는 휘장을,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1.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백 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2. 서쪽 울에 칠 휘장은 길이가 오십 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열 개와 밀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13.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오십 척이다. 14. 그 정면 한 쪽 가에 밀받침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5. 다른 쪽 가에도 세 밀받침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6. 울의 정면에 드리울 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천으로 이십 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네 개와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17.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놋쇠로 된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8. 울의 길이는 백 척, 나비는 오십 척, 높이는 오 척이 되게 놓아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는데, 놋쇠로 만든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9.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에 박을 맡뜯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짠 개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1.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잔불을 만남의 장막 안 증거대 앞의 휘장 밖에 켜 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뢰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해설

성막의 길이는 13.5 미터였고, 그것의 넓이는 대략 4.5미터 정도였다. 그리고 성막을 둘러싼 울의 넓이는 약 22.5 미터였고, 그것의 길이는 45 미터 정도였다. 성서의 규격인 1큐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인데, 요즘의 수치로는 46-56cm정도이다. 성막과 그 안의 가구들을 위한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모세에게 모여졌다. 우리는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셨음을 36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성막은 베일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커튼(회장)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안쪽 부분은 입방체로 지성소라고 불렀고, 다른 부분은 성소라고 불렀다.

성막에 쓰인 판자들은 각 판자가 밑 받침대 위에 세워질 때 서로 잘 맞도록 만들어졌고, 금고리가 긴 가로다지를 꿰어 잘 맞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막은 금방 세워지기도 했고 빨리 철거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야영할 때에는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세웠고, 행군할 때에는 대열의 중앙으로 성막을 운반했다. 레위지파 곧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만이 성막을 관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성막 내부치장의 연결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성막 울의 연결은 놋쇠나 구리로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성막 안에 사용된 세 가지 금속들과 그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막에 사용된 나무들은 가시가 돋친 아카시아 나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8-22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성막은 성전과 다름없이 주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거하시는 장소로 지어졌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이 거하셨던 인간의 몸은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였으므로, 그분은 그것 역시 성전이라고 부르셨다.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가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들 안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의 “지성소”는 가장 깊은 심정이며,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지성이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에 관하여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바깥뜰”은 우리의 행동이며, 여기서 비로소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열려지게 된다.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가구가 께뵈었음을 주목하고,

궤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십계명의 두 돌 판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명기 6장 6절, 시편 40편 8절, 119편 98절, 이사야 51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는 그 구절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막 속의 지성소 안에 궤가 있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성막이란 무엇인가?
- * 이스라엘족의 첫 교회가 텐트였던 까닭은 무엇인가?
- *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그 벽의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성막 꼭대기를 씌운 세 개의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바깥 주위의 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성막의 모든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 * 판자 밑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바깥뜰의 커튼이 걸어지는 고리는 무엇이며, 그 받침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질문 정리

- 1)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2)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외에 어떤 다른 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 3) 성막이란 최근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 4)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 5) 성막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졌는가?
- 6) 성막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가?
- 7) 각 부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8)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9)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10) 성막 뜰의 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11) 성막 뜰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가?

- 12) 성막 건축에 쓰인 세 가지 금속은 무엇인가?
- 13) 각 금속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 14) 휘장은 무엇인가?
- 15)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가?

질문의 답

- 1) 시나이산 2) 각종 규정이나 예배 방법 3) 천막 교회
- 4)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다 5) 동물 가죽 6) 3 7) 지성소, 성소, 성막울 8) 꿰
- 9) 젖상, 분향단, 등잔 10) 커튼 11) 물두멍, 제단 12) 금, 은, 동
- 13) 금은 나무를 씌우는데, 은은 팽팽하게 하는데, 동은 받침으로
- 14) 내부 커튼 15) 유목민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머리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한 패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리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르쳐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도 망각하고 있었다. 본과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과 그 도전의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성서본문: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16장: 1.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할이요, 할아버지는 크핫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2.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백 오십 명이 따라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4.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5.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야훼께서 알려 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라. 7.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야훼 앞에 향을 피워라. 그 때 야훼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8.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9.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당신 앞에 나와 야훼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나? 10.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성직자 직마저 요구하는가? 11.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야훼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13.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 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두시오? 14.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오? 우리는 못 가오.” 15. 모세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야훼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16.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훼 앞에 나오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17.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 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이백 오십 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18.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19.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20.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1.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22.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길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4.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26.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27.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28.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훼께 보내심을 받아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30. 이제 야훼께서는 여지껏 딸린 식구들과 함께 삼켜 모두 산 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31.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 버렸다. 33.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34.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35.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이백 오십 명도 야훼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

1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아론 성직자의 아들 엘르아잘을 시켜 불탄 자리에서 향로를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가져다 쏟아 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와 불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3.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다가 두드려 퍼서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라. 이것은 야훼 앞에 가져왔던 것인 만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4. 성직자 엘르아잘은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그 구리 향로들을 모아다가 두드려 퍼서 제단에 씌웠다. 5. 이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혈통을 이어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야훼 앞에 나가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무엄하게 나갔다가는 코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6.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불평하였다. 7. 이렇게 회중이 그들에게 모여 들어 덤비자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8.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다다르자, 9.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 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1.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어서 회중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시오. 야훼의 진노가 터져 염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소” 12.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 갔으나, 염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를 흔들며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며 13.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14. 코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병으로 죽은 사람만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다. 15. 염병이 물러가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 왔다.

해설

레위기서 이후 민수기서가 등장한다. 민수기는 모세가 주님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로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걷혀진 후 광야를 지나는 행군을 다시 시작한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해 주셨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을 토로하는 일이 허다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소수라서 서로 친하며 교육되기 쉽고 인도되기도 쉬운 집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해도 60만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수많은 집단 속에는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남의 허점만을 들먹거리며 자신의 의사에 동참하도록 타인을 피노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무리도 있었다. 또한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시기심과 불일치가 존재했다. 그래서 모세는 수차례 다양한 양상의 반역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반역중의 하나이다. 코라의 반역은 주님으로 인하여 끝이 났다. 그러나 코라가 받은 참혹한 형벌마저도 백성들을 침묵케 하는 충분한 교훈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을 죽게 한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큰 재앙을 초래 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인해서만 멈춰질 수 있었다.

주님께서 성서 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함한 전시대의 모든 인류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고집세고 반역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본문에서와 같이 잔혹한 처벌로만 질서를 지킬 수 있었다. 인간이 그 때 이후로 더욱 발달되고 이성으로 더욱 잘 교육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생생한 교훈이 필요하다.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 일인자가 되길 원했고 그로 인한 시기심으로 팍차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나쁜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선택한 진정한 지도자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이미 많이 갖고 있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께서 인간들이 극히 악해져서 어느 지도자들도 그들을 질서 안으로 되돌려 놓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옳은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지도력을 가지신 것에 반기를 들며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가 주로 우리에게 발생된다. 즉, 땅 곧 수준 낮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삼켜 버리거나 불 곧 자아 사랑이 우리를 파괴시킨다. 또는 재앙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리쳤듯이 다양한 악들이 내리치는 재앙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누가 반역을 주도했는가?
- * 그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 누가 그와 함께 음모를 꾸몄는가?
- *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 * 모세는 누구에게 지도력의 이의에 대한 수습을 제기했는가?
- * 모세는 코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코라 외에 분향한 25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모세는 그들의 향로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도록 모의했는가?
- 2) 코라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3) 레위지파의 직무는 무엇인가?
- 4) 아론의 직무는 무엇인가?
- 5) 코라는 왜 불만족했는가?
- 6) 코라 외에 누가 반역에 가담했는가?
- 7) 이 두 사람은 어떤 지파소속인가?
- 8) 그들은 어디에 머물겠다고 고집했는가?
- 9)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 10) 코라를 지지한 어떤 다른 집단이 그와 더불어 성막에 왔는가?
- 11)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 13) 계속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이 재앙은 어떻게 멈추었는가?
- 15) 다단과 아비람이 받은 벌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코라 2) 레위 3) 성막과 예배를 돌봄 4) 대성직자 5) 아론을 시기함
- 6) 다단과 아비람 7) 르우벤 8) 그들의 천막 9) 땅이 삼켰다
- 10) 250명의 회중 대표 11) 불이 살랐다 12) 제단을 덮도록 만듦 13) 재앙
- 14)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15) “믿음만”의 결과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지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고리 역할로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광야에서의 전투와 열 두 스파이(민수기 13-14장)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상기해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을 신뢰했고 모세에게 슬기로운 조언을 했음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3, 4장

3장: 1.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뻘을 떠났다. 요르단강에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2.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3.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성직자 들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4.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 척 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재계 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는 또 성직자

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성직자 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7.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8. 너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들어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가까이들 와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브리즈족, 기르갓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은 반드시 쫓겨나리라. 11. 이제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가 너희 선두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12. 그러니 즉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열 두 사람을 뽑아라. 13.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를 멘 성직자 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강 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독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14.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성직자 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15.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철이 되어 독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는데, 궤를 멘 성직자 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16.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독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도 하는 사해로 흘러내리던 물이 다 끊어져 백성들은 예리고 맞은편으로 건너 갔다. 17.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넜다.

4장: 1.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열 두 사람을 뽑고 3. 여기 요르단강 한복판 성직자 들이 발을 붙이고 섰던 데서 돌 열두 개를 날라다가 이 백성이 이 날 밤 목을 곳에 두라고 명령하여라.” 4.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낸 열 두 사람을 불러 모으고 5. 일렀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의 궤 앞으로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 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사람마다 어깨에 돌 한 개씩을 메어 나오너라. 6.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7. 야훼의 계약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어진 사실을 일러 주어라.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라고 일러 주어라.” 8.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메어 내다가 그날 밤 목을 곳에 세워 두었다.

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 요르단강 한복판에 돌 열두 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0.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멘 성직자 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너자 성직자 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 12. 르우벤과 가드와 므나쎄 반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투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섰다. 13. 무장한 그들 사만 명 정병들은 야훼 앞에 나서서 예리고 평야를 바라보며 싸우러 나갔다. 14. 그 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15.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궤를 메고 있는 성직자 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하여라.” 17. 여호수아가 성직자 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18.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이 요르단강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은 물길을 따라 이전과 같이 양쪽 언덕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다. 19.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나와 예리고 동편 길가에 진을 친 것은 정월 십일이였다. 20.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에서 메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의 후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묻거든, 22.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받을 적지 않고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23.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바다를 말리시어 우리가 모두 건너도록 해 주시지 않았느냐?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요르단강 물도 말리시어 우리로 건너게 해 주신 것이다. 24. 그리하여 세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의 손이 얼마나 힘 있으신가를 알게 하고 언제까지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해설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들어갔던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들의 불평불만과 반역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류하게 했다. 그들은 바른 길이 겹보기에는 멀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최선의 길임을 40년이라는 광야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가나안 땅, 즉 거룩한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러나 천국은 선한 이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천국적인 인격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장소가 아닌 영혼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있고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인들은 주님께 불만족하며 반역했으므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민수기 13-14장에는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열두 명으로 하여금 거룩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다. 스파이들은 가나안 땅이 과연 경이로운 곳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그들 중 열 명은 그곳에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진해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싸워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열 명의 스파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로 인해 그 땅을 점령하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겁쟁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머물도록 명령하셨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어린이나 젊은이들만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죽어야만 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어”라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는 교훈을 준다.

모세는 단지 거룩한 땅을 보는 것만 허락되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간의 광야생활이 끝나는 지점인 요르단강에서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진을 쳤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봉우리로 부르시고 산 아래 멀리 펼쳐져 있는 거룩한 땅을 모두 보여주셨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주님께 의해 임명되었다. 여호수아는 투사며 용사여서 광야 기간 동안 군대 지도자로서 활약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엄숙한 임무를 주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 1장 6-9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후 본문에 이를 때까지의 진영 경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48절에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 중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을 “아비림 산악지대를 떠나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 진영으로부터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보내어 요르단강을 건너 정탐하도록 했는데, 특히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을 살피도록 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너 다음 있게 될 첫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정탐원들이 되돌아 왔을 때 요르단 어귀까지 전진해서 3일 동안 그들이 건너야 할 강을 바라보면서 머물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가축 떼가 함께 하는 큰 무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범람하는 요르단강을 건널 배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스러워했다거나 두려워했다는 어떤 서술도 성경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진영지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돌들을 세우고 그 곳을 길갈이라고 불렀다. 「길갈」이란 히브리어로 “굴림”이라는 뜻이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 그 이름이 그곳에 주어졌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기적인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 용감해지는 것이 아주 더디게 이뤄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로 들어설 때 그 길은 결국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다. 그 이유는 계명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 5장 10-12절을 읽고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당시 강의 상태는 어떠한가? (15절 참조)
- * 맨 앞에 누가 나섰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는가?
- * 퀘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 * 첫 성직자들의 발이 강물 가에 닿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퀘를 멘 성직자들이 어디서 멈춰 있었는가?
- * 여호수아는 강바닥의 중간에 무엇을 세웠는가?
- * 그는 각 지파에서 뽑은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 누가 강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는가?
- * 그들이 강을 다 건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열 두 개의 돌로 무엇을 했는가?
- *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2) 누가 모세의 지도권을 승계 받았는가?
- 3)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가 내려졌는가?
- 4)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지는 어디인가?
- 5) 그들은 한 해의 어느 철에 마지막 진영지에 도착했는가?
- 6) 거룩한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강은 어떻게 갈라졌는가?
- 8) 여호수아는 강 한복판에 무엇을 세웠는가?
- 9) 거룩한 땅에서의 첫 진영지에 무엇을 세웠는가?
- 10) 여호수아는 왜 이 돌을 세웠는가?
- 11)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12) 왜 그렇게 불렀는가?
- 13) 그곳에서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느보산 2) 여호수아 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 4) 예리고성 반대쪽 5) 수확 철 6) 요르단강 7) 기적으로 8) 열 두 개의 돌
- 9) 열 두 개의 돌 10) 강을 건넌 기적을 회상하라 11) 길갈(굴림, 벗김)
- 12) 이집트인들의 수모가 벗겨졌기 때문 13) 과월절, 할례식

13 기브온 주민들

머리말

본과이전에 강조되었던 사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적들로 가득 했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리고의 함락과 아이성의 포획에 관한 이야기도 간략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9장

9장: 1.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해 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2.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3.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4.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털너털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헨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 5. 또 발에는 닳아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6.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8.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하고 묻자, 9.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야훼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10.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사는 바산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11. 우리 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12.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13.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4.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았다. 15.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인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키랏여아림에 이르렀다. 18.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19.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20. 우리는 그들을 살려 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21.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 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22.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 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으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5.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2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27. 그 날로부터 그들은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의 제단 일을 거들게 된 것이다.

해설

본문의 이전 문단인 여호수아 8장 30-35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27장 1-13절에서 준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집산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낭독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 25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체류했었음을 기억한다. 그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여 여호수아가 정복을 시작할 때는 적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예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은 가나안 땅의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이는 그 성들이 아주 견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전체는 여호수아를 대적할 준비로 부산했다. 그러나 그 적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체결하기를 선택한 부족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영토는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네 성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그리고 키랏여아림 지역의 성읍들에 해당되었고, 이 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히위족(Hivites)이다. 그들에 관해서는 창세기 10장 17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 그 부족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중의 하나인 가나안의 자손이라고 한다. 가나안족이 거룩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가나안족은 많은 소 부족들로 갈라졌는데,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적이였다. 그러나 헷족과 히위족이라 불리는 부족들은 이스라엘과 평화를 체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고대 교회로서, 지상에서 존재한 두 번째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는 지식 또는 진리를 특별히 사랑했다. 처음에 그 교회는 진리에 따라 살고자 진리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동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변색되어 갔다. 사람들 중에는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함보다 단순히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해서 배우는 자들이 있는데, 본문의 히위족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건 책략은 정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와 부딪쳐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다.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된다. 본문 14절을 통해 그의 실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성급하지 않고 주님께 조언을 구했다면,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안에 있는 것 곧 히위족의 감춰진 속내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속에서 수차례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많은 실수를 행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간구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결과에 솔직히 직면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약함을 가르치는데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신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실수가 주님에 의해서 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이란 진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나무란 이 세상의 삶이 더욱 안락하고 건강해 지도록 사람을 도와주거나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등의 행동에 의한 선을 표현한다. 우리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사물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히위족으로 하여금 나무를 꺾고 물을 길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한 이유이다.

나쁜 것은 언제나 나쁜 결과만을 초래한다. 다음 장에서는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체결하여 주위의 다른 부족들이 그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켰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까닭에 그들을 돕기 위해 싸우려 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자신이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길갈에 무엇을 세웠는가?
- 2) 길갈에서 이스라엘족들은 무엇을 기념했는가?
- 3) 거기서 그들의 음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4) 거룩한 땅 내의 적들 중 누가 여호수아에게 평화를 원했는가?
- 5)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 6) 여호수아는 어떤 측면을 소홀히 했는가?
- 7)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 8)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조약을 파기했는가?
- 9)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어떤 책임을 지웠는가?
- 10) 이 이야기에서 약속에 관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 11) 기브온 주민의 선조는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열 두 개의 돌 2) 과월절 3) 만나가 중지됨 4) 기브온 사람들
- 5) 먼 나라에서 온 체했다 6) 주님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 7)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8) no 9) 나무를 꺾고 물을 길어라

10) 약속을 성급히 하지 말라 11) 히위족(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온)

14 판관 「입다」

머리말

여호수아의 가나안땅 정복과 각 지파별 할당부분을 언급한 후 판관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땅에서 강세를 얻게 된 까닭을 설명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입다의 성급한 서약과 여호수아의 기브온 사람과 체결한 성급한 조약도 비교해 본다. 입다의 딸에 관련된 사건은 5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1장

11장: 1.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2.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놈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하면서 그를 쫓아 내었다. 3.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돕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떼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4.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은 이런 일이 있던 지 얼마 뒤의 일이었다. 5.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원로들은 돕 지방으로 입다를 데리러 가서 6. 그에게 청했다.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소” 7. “나를 미워하여 내 가문에서 쫓아내던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 온 것이 아니요?”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9. 입다가 길르앗 원로들에게 재우쳐 물었다.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 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받든단 말이지요?” 10. 야훼께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군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두고 보시오.“ 길르앗 원로들이 이렇게 다짐하자, 11.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 곳은 미스바였다. 12.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 영토에 쳐들어 왔는가?” 13. 암몬족 임금은 입다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 올 때 아르논 개울과 야벳강 사이에 있는 내 영토를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라.” 14.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15. “나 입다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영토나 암몬족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없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 홍해바다를 지나 카데스에 이르러 17. 에돔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영토를 돌아서 모압 영토 동편으로 갔었다. 아르논 개울이 그 국경이었으므로 아르논 개울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모압 국경에는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19.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왕노릇하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 20.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21.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개울과 야벳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광야에서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를 몰아내겠다던 말이나? 24. 너는 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빼앗아 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야훼께서 빼앗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나? 25. 모압 왕 시뵐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과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 못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덤비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 딸린 촌락, 아로엘과 거기 딸린 촌락, 또 요르단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에 자리잡고 산지도 삼백 년이나 되었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고장들을 찾지 않았느냐? 27. 나는 너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 된 일이나?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28. 그러나 암몬족의 임금인 입다에게서 온 전갈을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다. 29.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나세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았다. 30. 거기에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31.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32.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 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33. 아로엘에서 만닛 어귀에 이르기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뎀까지 진격하며 마구 짓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는데,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는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35.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내 가슴에 칼을 찌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쩔단 말이냐?” 36. 그러자 딸이 아뢰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37. 그리고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벋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 가 돌아 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38. 입다는 두 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두 달 동안 딸은 벋들과 함께 산에 들어 가 처녀로 죽는 것을 한하여 실컷 울었다. 39. 두 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 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엔 한가지 관습이 생겼다. 40.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곡하게 된 것이다.

해설

우선 신명기 6장 10-15절을 읽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경고를 확인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에 빠지는 경우 외에는 쉽게 주님을 잊어 버렸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발견된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될 때 쉽게 자기만족이나 자만심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는 곤경을 그냥 내버려두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백성들이 모두 죽은 후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이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땅의 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엄격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법과 경고를 까맣게 잊어 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이뤄 주신 하느님 대신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각종 신들을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고친 후 바로 잡힌 습관을 계속 지켜야 하지만 “극복했으니 별탈 있겠어. 겨우 한번 어기는데.”라는 식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뒤로 미끄러져 원위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공격을 시작하여 그들을 침략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주님께 통사정을 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세우셨다. 이러한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부른다. 판관들은 전 국토를 지배하거나 모든 백성들을 지휘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지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별된 자들이었다. 판관이란 이런 지도자들에 관한 기록이다. 본문에 나오는 판관은 입다 외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엘리 그리고 사무엘 등이 유명한 판관들이다.

당시 다신교를 믿는 국가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듯이, 입다 또한 자신의 딸을 제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죄악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얼마나 그리고 왜 나쁜가를 몰랐던 것이다. 우리 역시 선한 동기에서 시작하나 무지함으로 실수를 행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신다. 입다와 그의 딸은 그것이 옳바르다고 믿고 있었다. 주님께서 창세기 22장 16-17절에

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입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약속을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한 약속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른 이들이 약속을 지키려는 것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를 대비한 뒤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의 판관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 *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 암몬족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인가?
- * 입다는 어떤 경솔한 서약을 했는가?
- * 그가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 * 그의 딸은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했는가?
- *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어떤 간청을 했는가?
- *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어떤 관습이 생겼는가?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 3) 본문의 판관은 누구인가?
- 4)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5)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6) 입다는 무엇을 서약했는가?
- 7)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올 때 처음 환영 나온 자는 누구인가?
- 8)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노력했는가?
- 9) 그녀는 어떤 요청을 했는가?
- 10) 이로 인해 어떤 관습이 생기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백성들이 주님을 잊었다 2) 관관을 세워 주셨다 3) 입다 4) 요르단 건너편 5) 암몬
- 6) 자기를 환영 나온 첫 사람을 제물로 바침 7) 입다의 딸 8) 노력하지 않았다
- 9) 두 달간의 여유 10) 해마다 사흘씩 곡함 12)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라

15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머리말

관관시대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때의 백성들과 관관시대 백성들의 상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본문 이전의 내용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본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4장1-11절, 5장, 6장 1-16절

4장: 1.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물러오자, 이스라엘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에벤펠에 진을 쳤고 블레셋군은 아벡에 진을 쳤다. 2. 블레셋군이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사천 명이나 되었다. 3.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다.” 4.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룩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시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였다. 5.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6. 불레셋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하며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7. 불레셋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 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8.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 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9. 그러니 불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 사나이답게 싸우자!” 10. 이리하여 불레셋군이 짓쳐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삼만이나 쓰러졌으며 11.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5장:1. 불레셋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2. 불레셋군은 그 하느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3.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세웠다. 4.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성한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에게 구르고 있었다. 5.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성직자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6.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 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7.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8. 사람을 보내어 불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겼다. 9.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10.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냐?”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11. 그래서 그들은 불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고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폐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2.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1. 야훼의 궤가 불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지 칠개월이 지났다. 2. 불레셋 사람들은 성직자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보시오.” 3.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죄제물을 얹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4. 그들이 “면죄제물로 무엇을 얹어 보내야 합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 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을 다섯 개, 쥐 다섯 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불레셋 추장들의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5.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6.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멩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쫓먹이 송아지들은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8. 그리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면죄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 9.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0.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11.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12.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 갔다. 불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 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13.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14.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 멩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15.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와 금예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 날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6. 그

날 블레셋의 다섯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해설

관관이란 주님께서 거룩한 땅의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적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들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한다. 하지만 관관들 중 마지막 관관인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역경으로부터 어떤 지혜도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길만을 걸어갔던 것이다. 결국 성막을 지키는 성직자들마저 부패하고 말았다. 성막은 여호수아에 의해 거룩한 땅의 중심지인 실로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정규적인 예배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지고 있었다. 엘리는 실로에 있는 성막의 대성직자 였는데, 그는 너무 늙어서 그의 두 아들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성막의 의무를 돌보도록 허락했다. 그의 두 아들들은 자신들이 성막을 모독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시중을 듣기 위해 성막으로 데려와져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엘리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리하여 사무엘은 관관시대의 마지막 관관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관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성장하기 전에 그들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큰 재난을 겪게 되었다. 이 재난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이다.

블레셋 족이란 가나안의 서부 해안을 따라서 있는 평야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부유했으며 강했고 튼튼한 성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족들은 아스돗, 가자, 아스클론, 갓 그리고 에크론이었다. 블레셋 족들은 관관시대 때에 아주 세력이 커져 이스라엘을 자신만만하게 내려 누르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 강해지자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어떻게 조처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주님으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지 않고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고서도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 행한 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잘못으로부터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케마저 빼앗겼듯이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교만한 기대를 결코 채워 주시지 않는다.

블레셋 족의 신인 다곤의 신상은 물고기 형상의 몸에 사람의 머리와 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곤의 신상은 블레셋 족들의 마음이 상징하는 것과 아주 닮아서 그것의 사람부분인 머리와 손은 동강나져 뒹굴고 물고기인 부분만 성한 채 있었던 것이다.

케는 블레셋 지역의 어느 곳으로 옮겨지던지 간에 두 개의 재앙이 터졌다. 케가 옮겨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종기로 끙끙 앓았고, 쥐떼가 득실거리며 작물을 마구 파괴시켰다. 이러한 두 재앙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들처럼 사람들에게 만연된 특수한 악들을 상징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심정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계명을 읽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행복이나 평안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에게 주님의 계명은 귀찮은 것에 불과해서 그들은 계명을 없애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마음에 임하는 계명들이란 재앙으로 밖에 느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비유로서 우리의 영혼 곧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들에 대한 묘사이며 상징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함에 따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데, 본문의 이야기를 상응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의 "케"가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지는 상황 즉 케를 빼앗김이 있다. 이 상황이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뒷전에 계명을 처박아 두려고 애쓰는 것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스라엘로 케가 돌아옴"이란 우리가 케의 원 소유지인 우리 삶의 중심부에 계명을 되돌려 놓기로 결심하는 때를 상징한다.

본문에서 케는 실로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케는 벳세메스로부터 키랏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지게 되어 그곳에 이십 년 동안이나 안치되었다. 벳세메스와 키랏여아림은 "레위지파"의 성읍들이었다. 레위인들은 과거 영토가 분할되어 각 지파에게 영토가 할당될 때 지역대신 거룩한 땅 전국에 위치한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는데, 그 중의 둘이 바로 벳세메스와 키랏여아림이었다. 그래서 이 성읍의 거주민들은 모두 레위지파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은 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 후 케를 위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새 성막을 지은 후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안치되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어떤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는가?

- *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 *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전에 주님께 그들을 도와 달라고 간청한 어떤 것과 같다고 생각되는가?
- * 누가 실로에서 전쟁터로 궤를 가져왔는가?
- * 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홉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블레셋 군이 처음 궤를 옮겨 간 곳은 어디인가?
- * 그들은 궤를 어디에 두었는가?
- * 블레셋인들의 신상에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데 무엇이 사용되었는가?
- * 그 수레는 어떻게 끌려갔는가?
- * 궤와 더불어 어떤 예물이 보내졌는가?
- * 누가 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블레셋인들에게 알려 주었는가?
- * 소는 궤를 어디로 끌고 갔는가?
- *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3) 이스라엘군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짜냈는가?
- 4) 궤를 성막에서 끌어낸 두 성직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5) 궤는 어떻게 되었는가?
- 6) 궤와 같이 있던 블레셋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났는가?
- 7)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궤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 8) 누가 블레셋 사람에게 궤를 돌려보내야 하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9) 궤는 어디에 실려 되돌려 보내졌는가?
- 10) 궤와 더불어 무엇이 보내졌는가?

- 11) 케는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 12)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왜 불레셋은 케를 간직할 수 없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팔레스타인 3) 케를 전투지역에 가져다 놓기로 함
- 4) 죽었다 5) 빼앗겼다 6) 그들 신이 부서졌다 7) 케를 되돌려 보내자
- 8) 성직자 와 점쟁이들 9) 새 수레 10) 다섯 개의 종기와 쥐 11) 벳세메스
- 12) 순종(선용) 없는 지식 13) 재앙이 계속 있으므로

16

사울과 요나단

머리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체격과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신체적 강함과 용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언급할 것인데, 이는 차후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이 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4장 1-46절

14장: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불레셋 초소로 가자”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 그 때 사울은 육백 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3. 실로에서 야훼의 성직자로 있던 엘리의 중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톱의 아들인 아히야가 예봇을 모셔 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4.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 스타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5.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6.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7.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번이 이렇게 말하자 8.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데로 건너가자. 9.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 섰거라’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 가지 말고 10.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 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11.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놈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하면서 12.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을 건너다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 줄 게 있다”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 올라 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하고는 13. 손과 발로 기어올라 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바짝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발을 반 이랑 갈아 젖히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 15.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 16. 베타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블레셋군이 갈광질광하는 것을 보았다. 17.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알아내어라”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 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19. 사울이 성직자 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성직자 에게 “그만두어라”하고는 20.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21. 이제껏 블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22.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군도 블레셋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23. 이렇게 그 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으므로 싸움은 베호론 건너편까지 번져 갔다. 24. 그 날 이스라엘군이 하나 둘 모여 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25. 마침 거기 들에는 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26.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28. 군인 중의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29.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꿀 한 번 찍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30.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불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그 날 이스라엘군은 불레셋을 므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32.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 썰어 먹어 버렸다. 33.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피 썰어 먹어 야훼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느님을 배반 하였구나”하면서 큰 돌을 굴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34. 그리고는 전군에게 흠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피 썰어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35.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 드린 제단이다. 36.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불레셋을 해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부수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으나, 아히야 성직자는 우선 하느님께 여쭙어 보자고 제의하였다. 37. 사울은 하느님께 여쭙었다. “불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시지 않았다. 38.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 살아 계시는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40. 사울이 온 이스라엘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하고 대답하자 41.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만약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뭇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을 풀려났다. 42.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져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 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꼴을 좀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44.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하고 선언하였다. 45.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 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 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46. 사울은 블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블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해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었고 다른 판관들과는 많이 달랐다. 그는 성막에서 양육되었고 전투를 지휘하는 용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판관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기도 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들은 그가 주님께 의해 세워진 사람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인물이라고 그를 인정했다. 그는 정규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아 다녔다. 사무엘상 7장 15-17절을 보면, 그는 해마다 순회하면서 그에게 의뢰된 모든 사건을 심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면 적의 손아귀로부터 빼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게다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적과 싸우길 원했고, 전쟁터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원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왕을 세우고 있음을 눈여겨보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다. 사무엘은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가지도록 하라고 하셨고

어떤 왕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도 보여 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위해서 언제나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신다. 주님께서 모색하시는 방법이란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방법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지적해 준 사람은 사울이었다. 그의 키는 못 백성들에 비해서 머리하나 만큼 더 컸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조건이어서 그들은 그를 왕으로 환영했다.

사울은 용감하고 대담한 젊은이였다. 그는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암몬 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암몬족은 판관인 입다가 싸워서 누른 백성이기도 하다. 사울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자 자기 과신과 성급함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사울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임명하신 조연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사무엘의 충고를 사려 깊게 듣지 않았고 그의 충고를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주님께 여쭙보지 않고 케를 전쟁터로 옮겨 놓아서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했던 때와 같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와 다른 아들이 있었다.

William Worcester은 「The Sower」라는 책에서 요나단의 징조에 관련된 흥미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큰 바위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데 밑쪽에 시냇가를 가진 좁은 골짜기의 양쪽에 하나씩 있다. 이 골짜기는 동과 서로 뻗쳐 있다. 북쪽의 바위는 언제나 태양광선이 있어 보세스라 불리는데, 그 뜻은 “빛남”이다. 세네라는 다른 바위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인데, 바위 위에 자라난 가시덤불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다.”

성경에서는 작은 승리로 인해서 적들이 서로 치고받아 쉽게 적을 이기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이것의 의미를 궁금해 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조그마한 시험들을 가진다. 우리가 비록 작은 시험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임하게 될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에 아주 크고 중요한 시험과의 싸움에서 일상생활에 있었던 조그만 시험을 극복한 승리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인식하며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블레셋 군대를 과감히 공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몰아내었다. 그러나 우리는 14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이 평생 블레셋과 싸웠으나 결코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울은 본문 후반부에서 와 같이 지혜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 어떤 적이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가?
- *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하기로 작정했는가?
- * 요나단과 함께 행동한 사람은 누구인가?
- * 요나단은 그의 무기당변에게 주님께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 그는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 요나단과 무기당변은 몇 명의 적을 무찔렀는가?
- * 그 결과 적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사울은 그의 군대가 블레셋 군을 추격했을 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 누가 무지하여 사울의 명령을 어겼는가?
- * 요나단은 무엇을 먹었는가?
- *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명령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 누가 요나단을 구해주었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초대 왕이였는가?
- 2)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는가?
- 3) 그는 어떤 적과 처음 싸워 승리했는가?
- 4) 사울의 약점은 무엇인가?
- 5) 어떤 적이 그를 괴롭혔는가?
- 6)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7)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떤 점이 달랐는가?
- 8)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9) 왜 요나단은 둘이서도 적을 해치울 수 있다고 했는가?
- 10) 어떤 곳에서 그들은 적과 접전했는가?

- 11) 요나단은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2) 요나단의 습격이 승리하자 불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사울의 군대가 불레셋에 진격하면서 사울이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 14)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 15)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16) 누가 요나단을 구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여서 3) 암몬족
- 4) 성급하고 불순종적이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5) 불레셋 6) 요나단
- 7) 주님을 신뢰했다 8) 불레셋 진영을 공격했다 9) 믿음 10) 가파른 바위
- 11)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 말하면... 12) 공포에 휩싸였다 13)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 14) 꿀을 맛보았다 15) 죽이려 했다 16) 군인들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머리말

요나단을 중심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울의 시기심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강조되며, 다윗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해 그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짜의 죄와 벌은 본문에서 상당히 드라마적인 부분이지만,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본문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서본문: 사무엘하 6장

6장: 1.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소집했다. 2. 다윗은 이 전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느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그 궤는 거룩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3.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4. 우짜는 궤 옆에서 따르고, 아효는 궤 앞에서 인도했다. 5.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거문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6.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7. 야훼 하느님께서 우짜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느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8.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곳을 베레스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9. 다윗은 그 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궤를 모실 것인가”하였다. 10.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궤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 들이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벤테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11. 야훼의 궤를 오벤테돔의 집에 모셔 둔 석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벤테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12. 오벤테돔의 집에 하느님의 궤를 모셔 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궤를 오벤테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 왔다. 13. 야훼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진 황소를 잡아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15.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 왔다. 16. 야훼의 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 올 때 다윗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 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17.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궤를 모셔 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18.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9. 그리고 모여 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개, 마른 대추야자 한 뭉치, 건포도떡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체통이 참 불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22. 이번보다도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23.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해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님에 대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분께서 사울을 거절하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후 주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셨고,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주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윗이 개울에서 주운 매끈매끈한 돌로 돌팔매를 만들어서 거인인 골리앗을 죽인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 싸움이 있기 전 사울은 다윗을 그의 무기 당번으로 임명했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친우로서의 맹세를 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싸움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며 칭송했고, 이에 사울은 시기심이 발동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었고, 그 후 다윗은 숨어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자 다윗은 비로소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여 그 땅의 남쪽 부분에 위치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다. 헤브론은 과거 아브라함의 정착지였다. 그러나 다윗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고 7년이 흐른 뒤에 북부의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여부스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

수도를 정한 다윗의 바램은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유다 바알라란 키랏여아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키랏여아림은 연맹 부족인 기브온 족에 딸려 있던 성이었다. 우리는 기브온 족이 과거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은 부족임을 기억한다(여호수아 9장).

사람들이 법궤를 소달구지에 올려놓고 운반했던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법궤가 운반될 때는 레위지파가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법궤가 어깨에 매어져 운반되었다면, 소가 뛰는 바람에 그것이 흔들려 떨어지지도

않아서 우짜가 시험에 빠질 염려도 없었을 것이다.

우짜는 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고정시키려고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우짜가 죽은 진정한 이유는 그가 궤에 손을 대어서라기보다는 그가 법궤의 권능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짜는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무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짜의 태도는 사무엘의 충고를 무시한 사울의 태도와 유사하다. 우짜의 순간적인 행동은 그의 깊은 속에 있었던 궤에 대한 그의 진정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우짜와 같은 태도를 종종 보이게 된다. 즉, 우리가 계명이 이제 낡은 것으로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알맞게 설명되거나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짜가 법궤를 받치려고 손을 대는 광경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욱 잘 알고 계시며, 그분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주님의 계명은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현재의 우리들에게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권능이 정확히 똑같다는 것이다.

역대기상 15장 1절과 역대기하 1장 3-6절을 읽어보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성막이 본래의 성막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의 성막은 레위인들의 성중의 하나인 기브온에 세워져 있었다. 그 성막은 솔로몬 통치 초기까지는 그곳에 있었으나, 그 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막에서의 진짜 권능은 사실 법궤를 통하여 나왔다. 이는 우리가 계명을 준수할 때만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키랏여아림으로부터 법궤를 어떻게 옮기려고 했는가?
- * 우짜는 소가 법궤를 흔들리게 하자 그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가?
- * 그래서 우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 * 우짜의 행동은 그 자리에서 우짜가 즉시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였는가?
- *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 * 우짜가 죽자 다윗은 궤를 어디로 모셨는가?
- * 그곳에서 궤는 얼마동안 모셔졌는가?
- * 어떤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도록 설득시켰는가?
- *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움직였는가?

- *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운반될 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 * 누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를 경멸하는 발언을 했는가?
- * 그 여자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는가?
- * 다윗은 예루살렘의 어디에 법궤를 모셨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가?
- 2) 누가 그 왕을 기름 부었는가?
- 3) 그는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는가?
- 4) 누가 그 왕의 친한 친구였는가?
- 5)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하도록 했는가?
- 6)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주었는가?
- 7)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는가?
- 8) 다윗은 어떤 성읍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는가?
- 9) 그는 그곳에 무엇을 모시고자 했는가?
- 10) 궤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 11) 왜 우짜에게 변이 발생했는가?
- 12) 누가 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비웃었는가?
- 13) 그녀가 받은 벌은 무엇인가?
- 14) 다윗은 예루살렘 어느 산에 궤를 모셨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사무엘 3) 아니다 4) 요나단
- 5)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 6) 요나단 7) 불레셋과의 싸움에서 8) 예루살렘 9) 궤
- 10) 키랏여아림 11) 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12) 미갈 13) 아이를 낳지 못했다 14) 시온산

18

성전 건축

머리말

열왕기상 5장 17절(개역 5:3)에서 언급되는 성전을 짓고자하는 다윗의 바램과 주님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의 차이점도 재고해본다. 그리고 성전의 전체적인 특성과 건축 재료들 그리고 장식에 따른 각종 타입도 생각해 보자. 또한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되는 띠로의 왕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 내용도 파악해 두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6장

6장: 1.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시브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2. 솔로몬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육십 척, 나비가 이십 척, 높이가 삼십 척이었다.
3.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이십 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십 척 더 나왔다. 4.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5. 그는 또 전의 벽 둘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둘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결방들을 꾸몄다. 6. 아래층은 나비가 다섯 척이고 가운데층은 여섯 척, 삼층은 일곱 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돌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7.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8.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9.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10.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다섯척으로서 송백나무 재목으로 전과 맞게 하였다.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12.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13.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14.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15.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쪽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16. 또 이십 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17.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의 길이가 사십 척인데 18.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돌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19. 밀실은 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20. 그 밀실은 길이 이십 척, 너비 이십 척, 높이 이십 척인데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어 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22.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23.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십 척 되는 거룩을 둘 만들어 놓았다. 24.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섯 척이고 다른 날개도 다섯 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십 척이 되었다. 25. 다른 거룩도 십척이 되었다. 두 거룩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26. 한 거룩의 높이도 십 척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룩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룩의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28. 솔로몬은 거룩에 금을 입혔다. 29. 그는 전의 온 벽을 돌아가며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을 새김으로 새겨 놓았다. 30.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31.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32.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룹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33.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34.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35. 그 위에도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36. 또 다듬은 돌 세 줄과 송백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37. 제사 년, 시브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38. 그리고 제십 일년 팔월 곧 불월에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

해설

다윗은 전투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적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 왕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세력 면에서도 강대해졌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기름 붓도록 명령했고, 백성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이다. 솔로몬의 통치기간은 내내 태평성대였고, 솔로몬 역시 다윗처럼 40년간 통치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주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기브온으로 갔었다. 이는 시나이 산에서 만들어진 성막이 그 당시까지 궤를 제외한 모든 기구들을 가진 채 기브온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러한 솔로몬의 겸손한 태도와 그에 따른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는 아주 슬기로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론 타국의 왕이나 여왕들까지도 그의 말을 청종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기도 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사람은 다윗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은 그 성전 건축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성전은 아니나 건축된 장소는 같다. 예루살렘성 안에는 시온산과 모리아산이라는 두 개의 언덕이 있는데, 이 둘은 계곡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시온산은 서쪽 언덕에 위치하는데, 그곳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이었다.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는 이곳에 궤를 위한 성막을 지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동쪽 언덕 곧 모리아산(역대기하서

3:1)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 뒤에도 두 개의 성전들이 더 건축되었는데, 하나는 스투바벨이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로데가 지은 성전(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이다. 이 두 성전들 역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위치였다.

성전의 벽은 송백나무로 지어졌고 마루와 문들은 전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모두 레바논 산에서 가져와 졌다. 띠로의 왕 히람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아주 굳건한 동맹관계였으며, 성전을 지을 노련한 건축가를 준비해 솔로몬의 일꾼들과 협력하여 일하도록 했다. 열왕기상 5장 22-25절 (개역 5:8-11)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히람과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 수 있다.

본문에 기술된 간략한 사항만으로는 성전의 구조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예제키엘서 40-48장에 수록되어 있다. 새교회 목사인 T. O. Paine이 100여 년 전 성전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한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에 대한 가장 정밀한 건축학적 고찰로 사료된다. 본문에 의하면 성전의 크기에 관한 비례는 성막의 그것과 같다. 즉,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 것도 성막과 같고 밀실은 지성소로서 그 안에 례가 안치되었고 크기역시 성막의 크기와 같은 한 큐빗이다. 그러나 성전은 항구적인 건축물로 첨가된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다. 즉, 앞쪽에 넓은 현관을 가졌다는 것과 두 개의 큰 청동기둥이 받쳐 든 지붕이 있었다는 것 등이 그 예다. 기둥들이나 다른 모든 청동기구들은 띠로의 왕 히람이 아닌 동명이인인 다른 히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열왕기상 7장 15-2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전 바깥쪽 벽 둘레에 작은 방들이 지어졌고, 이 방들은 성전 안으로 열려져 있었다. 이 방들은 솔로몬 왕이 소유했던 금과 은제품 그리고 전리품들을 보관하는 보물 창고로도 사용되었다. 성전의 기구는 성막의 것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성소 안에 한 개의 등경 대신 10개의 등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제키엘서를 통해 바깥뜰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큰 제단과 놋대야뿐만 아니라 열 개의 작은 놋대야가 있었으며, 직무중인 성직자들을 위한 방들과 성직자들이 먹도록 배분된 제물의 일부를 굽거나 삶기 위한 장소들도 있었다.

본문 8장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있었던 거대한 헌당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성전 안에 언제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 어떠했는가?

- * 성전은 어떤 재료들로 지어졌는가?
- * 성경은 성전이 지어진 방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7절 참조)
- * 성전의 안쪽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솔로몬이 밀실을 위해 만든 두 개의 형상은 무엇인가?
- * 그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그들의 키는 얼마인가?
- * 그들의 날개는 얼마 컸는가?
- * 그들은 무엇으로 입혀져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다윗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 2) 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 3)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
- 4) 솔로몬이란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 5) 누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는가?
- 6) 솔로몬은 그 재료의 값을 어떻게 치렀는가?
- 7) 성전 건축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 8)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 9)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 10) 성전은 예루살렘 내의 어느 곳에 지어졌는가?
- 11) 왜 성전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조용하게 세워졌는가?
- 12) 성전 건축은 몇 년이나 걸렸는가?

질문의 답

- 1) 적을 정복함 2) 평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솔로몬 4) 평화 5) 히람
- 6) 곡식, 기름, 성읍들 7) 돌, 나무, 금 8) 전체적인 윤곽측면에서

- 9) 성전은 더 견고하고 항구적이다 10) 모리아산
11) 원산지에서 돌을 깎고 다듬었기 때문 12) 칠 년

19 엘리아의 겂옷

머리말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그 원인을 살펴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대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 예배를 대체시킨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선교활동과 분단된 왕국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장

2장: 1. 야훼께서 엘리아를 회오리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 가실 때가 되어 엘리아가 길갈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2.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 있게.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3. 베델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4.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5.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7. 예언자 수련생 오십 명이 뒤를 따라 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보고 있었다. 8. 엘리야가 걸음을 벗어 말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 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말해 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뿔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11. 그들이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뿔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걸음을 집어 들고 되돌아 와 요르단강 가에 서서 14. 엘리야의 걸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15.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6.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군세고 용감한 장정이 오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가다 산 위애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17. 그들이 계속 올라 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 하였다. 그리하여 오십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18.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 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20.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21.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23.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아 꺼져라. 대머리아 꺼져라”하며 놀려 대었다. 24. 엘리사는 돌아 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퇘지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사십 이 명을 찢어 죽였다. 25.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가르멜산을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 왔다.

해설

솔로몬은 40년 동안 평화로운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며 통치했지만, 통치 말기에는 주님에 대한 충절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갔다. 그는 타국 출신의 아내를 수없이 많이 거느렸고, 그녀들을 위해 거룩한 땅 내에 여러 신들의 제단을 세워 주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위엄을 지키며 수많은 아내들을 위한 궁전의 경비충당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폭정을 하던 그가 죽자 북부 지역의 열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반기를 들고 사마리아에 그들의 수도를 정하면서 북쪽 지역에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 이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 지역, 즉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했던 지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으며 유다라고 불렸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사악하여 주님을 예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왕국으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가 바로 엘리야였다.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엘리야가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수행한 기적들 중 몇몇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 본문은 엘리야의 삶 중에서 그의 마지막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의 계승자가 될 것이니 그를 종이며 제자로서 부르라고 분부하셨다.

만약 우리가 엘리사가 보았던 광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엘리야가 주님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예언자였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은 광경을 본 후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허위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본 것이 확실히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엘리사가 가지게 된 갑절의(두 몫) 영감과 같은 것이다. 어렸을 때의 우리는 부모님이나 교회의 선생님들이 성경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배웠으며, 말씀을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다.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계명들이 진실로 주님의 법임을 깨닫게 되며,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참된 행복으로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임을 삶을 통해서 실감하고 계명대로의 삶을 꾸리려고 애쓰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갑절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던 것은 죽을 정도의 무례를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대머리라고 불리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엘리사는 주님의 예언자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한 깊은 의미는 성경공부를 심도 있게 해나가면서 차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르단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 * 이전에 어떤 권능이 이 강을 갈랐었는가?
- *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떤 소원을 말했는가?
- * 엘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엘리야가 하늘로 오를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 엘리야의 겹옷은 어떤 의미인가?
- *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계승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겹옷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 * 엘리사는 예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수행했는가?
- *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을 때 어린이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놀렸는가?
- * 어린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는가?
- 4)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진 두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5) 엘리야의 직무가 끝나자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했는가?
- 6)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 7) 엘리사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8)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9) 예언자 수련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엘리사는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가?
- 11) 어린아이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놀렸는가?
- 12) 그 말이 그토록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린이들에게 무슨 변이 생겼는가?

질문의 답

- 1) 둘로 나뉘었다 2) 이스라엘, 유다 3) 유다 4) 엘리야, 엘리사 5) 두 배의 영검 6) 만일 내가 가는 것을 본다면 가능하다 7) 불말과 불수레 8) 그의 겹옷 9) 겹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보고 10) 물을 정하게 했다 11) 대머리라고 12) 불손함의 표시 13) 곰이 찢어 죽였다

20 요 시 아 왕

머리말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사악한 왕들이 유다왕국에 잇달아 출현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가 쇠퇴되고 우상이 범람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꾀한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에게 유다왕국까지 정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23장까지 읽어두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 본문: 열왕기하 22장

22장: 1. 요시아는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시갓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여디다라 하였다. 2.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3. 요시아 제십 팔 년에, 왕은 므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공보대신 사반을 야훼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4. “대성직자 힐키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 받아 내어 5. 야훼의 전 공사감독들에게 주어 수리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7.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요.” 8. 대성직자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공보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9.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은을 쏟아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10. 그리고 나서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성직자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11.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12. 그리고는 대성직자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불, 공보대신 사반과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였다. 13. “이번에 찾아 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쭙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14. 대성직자 힐키야와 아히감, 악불, 사반, 아사야는 여예언자 홀다를 찾아 갔다. 홀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요 디크와의 아들인 의상담당관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시가에 살고 있는 홀다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자, 15.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십시오. 16.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 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 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17.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여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18. 야훼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 들었다. 19. 이곳이 썩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 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20. 네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정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네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와 이 말을 어전에 아뢰었다.

해설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더욱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시게 됨으로서 그들의 구원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히즈키야왕이 유다왕국의 보좌에 있을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정복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동쪽의 땅으로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후 그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간 후 정착한 나라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했었는데, 이는 그들이 각기 다른 국가들로 분리되어 정착하며 흡수되어 주님에 대한 예배의 보존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 간 후 텅 빈 이스라엘의 영토에 외국인들을 끌고 와서 정착시켰다.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 24-29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복음서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며,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이라며

떨시받고 있었다.

유다왕국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모두 악하지는 않았지만, 유다왕국 내에도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상기시켜주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때때로 선왕이 등장하여 우상을 때려 부수며 백성들을 위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도 했다. 그리고 한 때 유다 백성들은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했다. 주님께서 유다왕국의 히즈키야왕이 선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정복될 때에도 유다왕국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므나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아버지인 히즈키야가 죽은 후 전 영토로 하여금 우상 숭배, 특히 비알을 숭배하도록 했다. 히즈키야왕은 다신교의 신전을 위해 높이 쌓아둔 산당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러나 므나세는 “부왕 히즈키야가 허물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유다왕국의 역대 왕 중 가장 사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성전 내에까지도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아몬도 그를 본받았지만,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아는 유다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

신명기 31장 24-26절을 읽어보자. 이 부분의 말씀은 본문에서 발견된 법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모세의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당면하게 될 것들에 관한 경고로 가득하다. 므나세와 아몬이 나라 전역에 뿌려 놓은 죄악상을 생각하면서 법전의 낭독을 듣는 선하고 양심적인 요시아 왕의 심정을 각자 상상해보도록 하자.

요시아 왕의 조상인 히즈키야왕 역시 그의 시대에 평화를 약속 받은 적이 있다. 진실로 의를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면 돕는다. 요시아왕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 신신했다. 그는 모든 우상들, 특히 여로보암이 베텔에 세웠던 금송아지까지 파괴했다. 이 일은 히즈키야왕도 해내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의 역량만큼 행할 수 있는 특별히 선한 것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스스로 잘 파악하여서 기회가 되는대로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역량에 맞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유용하게 되어서 주님의 역사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유다왕국의 멸망은 요시아 왕에 의해 지연되었다. 요시아가 이집트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부왕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겨우 몇 년간 왕 노릇을 하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포로가 된 자들 중에서는 그들을 상기시켜 주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에제키엘과 다니엘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한지 7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다.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주님의 강림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시아 왕은 몇 살에 왕위에 등극했는가?
- * 그가 행한 첫 번째 선한 업적은 무엇인가?
- * 성전을 수리할 때 대성직자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요시아는 주님께 여쭙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 백성들이 받을 벌에 관해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 그 여자는 요시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두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를 따랐는가?
- 2)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한결같이 악했는가?
- 3)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가?
- 5) 그의 치적의 첫 사업은 무엇인가?
- 6) 그는 성전 수리 내용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 7)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 8) 그 책이 요시아에게 읽혀졌을 때 그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께 여쭙 보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10)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11)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가?
- 12)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도 건드리지 못한 어떤 것을 요시아 왕이 철거했는가?
- 13) 나라에 질서가 잡히자 그는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가?
- 14) 요시아는 어떻게 죽었는가?

15) 그가 죽은 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유다 2) 아니다 3) 요시아 4) 8 5) 성전수리 6) 백성의 헌금으로 7) 율법책
8) 옷을 찢었다 9) 여 예언자 홀다 10)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요시아 시대에는 그 벌이 없으리라 11) 우상과 제단, 산당을 철거했다 12)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13) 과월절
14)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15) 바빌론에 정복당함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머리말

성경에서 시편은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놓여 있다. 시편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늘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책이다.

성 서 본 문 : 시편 91편

1.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이,
2. 야훼께서 네 피난처시요 네 요새이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3.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어
4.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5.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6. 밤중에 퍼지는 염병도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7. 네 왼쪽에 천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 천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8. 오직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악인의 죄 값을 네가 보리라.
 9.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10.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11.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12.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13.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새끼와 구리뱀을 짓이기리라.
 14.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 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 주리라.
 15.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 주고 높여 주리라.

16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해설

본문은 시편으로 노래이다. 개역 성서에서는 시편이 다른 책들과 거의 같게 인쇄되어서 노래나 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나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시편이 시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편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이 다른 찬송가들처럼 운율로 쓰여 있지 않아서 영창이라는 특수한 음악을 통해서 시편을 노래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시편들을 성전 예배에서 노래했다. 물론 그들의 노래 방법도 영창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편 찬양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성가대도 있었다. 사실상 레위지파의 몇몇 집안들은 이 찬양의 의무를 대대로 물려주었다. 따라서 그들의 성가는 매우 유명했다. 이에 대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관해 쓰인 시편 중의 하나로 알 수 있다. 137편과 126편을 읽어보자. 이 시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고향으로 귀환해도 좋다고 허용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노래했는가를 알도록 해준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시편을 노래로 불러와서 그 노래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자신들의 노래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시편서를 그들의 성서로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 왕에 의해 쓰였음을 기억한다. 그는 노련한 하프 연주자였고, 예술가 이면서 전쟁의 용사였다(사무엘상 16:14-23).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1-2절에서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쁨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라는 기록을 보게 된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단지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 의해 말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편서가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누가복음 24:44)”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시편은 주님께서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가져야 하는 느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인 책인 것이다.

본문은 주님을 의지함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어졌을 뿐이다. 즉, 우리의 육체란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벗어 던져져야 할 것, 즉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면 벗어져야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닥치는 여러 일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를 간직해야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진정한 “나”이며, 그것은 영원불멸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랑과 미움, 신뢰와 두려움 또는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하는 주체도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육체는 단지 우리 영혼의 수단이 되어서 행동해줄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이모저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배우려고 하며 그분께 가까이 있고자 하는 사람은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질병, 가난, 실망 또는 사별 등의 어떤 것이 발생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것은 영혼에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불평하는 대신 여유 있게 살아내는 용감한 이들을 칭찬하고 존경한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 역시 노력하면 모두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나쁜 것들은 우리가 지성과 심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느낌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들은 우리를 해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즉 그분이 언제나 슬기로우시며 올바르심을 인지하게 되어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의 천사들은 잘못된 생각과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밀어 내려는 싸움을 돕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나쁜 것들은 지옥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과 천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는 우리가 아닌 주님이시고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차 공부하면서 영혼 속의 다양한 적들의 실태를 더욱 관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적들에 대적해가면 우리에게 늘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의 구절들을 가능한 많이 외워서 시험이 닥칠 때마다 그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본문 4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분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과 같고, 우리의 무기는 말씀 곧 주님의 진리인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공부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시편은 무엇인가?
- 3) 우리는 시편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 4) 왜 모든 이는 시편을 사랑하는가?
- 5) 주님께서서는 시편 91편에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 6) 본 시편은 위험을 어떻게 둘로 분류했는가?
- 7)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위험을 말씀하고 계신가?
- 8) 주님께서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갑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9) 그분은 천사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 10)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를 돕도록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11) 낮에 있는 위험과 밤에 있는 위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시편 2) 노래 3) 누가복음 24:44 4) 심정에 호소하므로
- 5) 보호 6) 밤과 낮 7) 아니다 8)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
- 9) 우리를 돌볼 것이다 10) 나쁜 생각과 느낌에 대해 사용
- 11) 낮 - 결과를 예상하면서 있어진 악
밤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진 잘못

22

성전에서 솟는 샘

머리말

에제키엘서를 중심으로 하여 대 예언서의 일반적 요점을 소개한다.

성 서 본 문 : 에제키엘 47장 1-12절

47장: 1.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 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뺨은 선을 타고 흘러 내려갔다. 2. 나는 그분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나가 바깥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 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3.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밭목에 찼다. 4.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5.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6.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7. 되돌아와 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8.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 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9.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들어 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10.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그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11. 그러나 수령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12.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해설

대 예언서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예레미야서의 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살았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 악한 길을 고집할 때 그들에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들이 고향에 머물기 위해서는 바빌론에 복종하면서 공물을 바쳐야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갈 때 극빈자들과 함께 거룩한 땅에 남도록 허용되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 땅에서 예언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각자 고향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그들을 구원할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은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려있었고, 그들 중의 한 집단은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한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데리고 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예레미야서의 끝 부분과 애가서가 이집트에서 기록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 우리는 에제키엘서 첫 장의 몇 절로부터 그가 성직자 였다는 점과 포로로 된지 5년째 되던 해에 예언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된다. 그에게는 많은 경이로운 환상들과 더불어 유다 외의 다른 국가들의 운명도 보여 졌다. 그리고 그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포로생활 중이더라도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는 70년 후 귀향하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귀향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과히 놀라지 않았다. 본문은 에제키엘의 마지막 환상 중 일부로 25년 동안의 그의 포로생활 중에 주어진 환상 중 마지막 부분이다. 그의 영은 환상 중에 들리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지만, 그는 장차 다시 건설되어야 할 성전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도록 허락되어졌다. 그리고 성전의 이모저모를 낱낱이 보여주도록 천사가 그에게 보내졌다. 에제키엘서 40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들이 갔을 때 천사는 성전의 모든 것을 측량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에제키엘의 환상 속의 성전이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일치한다는 것과 더불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세부사항보다 더 세밀한 면이 부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측량된 후 천사는 동쪽을 향해 나 있는 성전 정문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성막역시 언제나 동쪽을 향해 입구를 갖도록 설치되어졌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말씀에 대한 공부 지속되고 깊어지게 되면 에제키엘의 환상이 주는 경이로운 교훈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의 것 곧 강이란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는 정도만 살펴볼 정도로 한다. 이 강이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듯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첫 번째로는 강물이 밭목까지 찼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저 말씀의 겉 뜻만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해 가다보면, 우리는 말씀 속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느끼게 되어 어느 누구도 말씀을 다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영원히 공부해야 하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더욱더 많은 의미들을 배우게 된다. 강 언덕에 있는 어부들이란 삶에 필요한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강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원리들, 즉 말씀을 배운 후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큰 원리를 의미한다. 나무의 열매란 우리가 행한 선이며, 그들의 잎이란 우리 안의 큰 원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그것들을 고쳐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따라서 깊은 치료를 하는 약인 것이다. 이러한 잎들은 약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듯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말씀으로도 생명이 넘치게 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유일한 부분은 말씀을 따라 기꺼이 변하고자 원치 않는 우리의 고집이다. 이러한 고집은 우리의 이기적인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겨대는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의 수렁과 웅덩이가 된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에제키엘은 성전 문턱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가?
- * 제단의 어느 쪽에서 물이 나왔는가?
- * 첫 천 큐빗을 잴 후 물은 얼마나 깊었는가?
- * 두 번째 천 큐빗을 잴 후 물은 얼마나 깊어졌는가?
- * 세 번째 천 큐빗을 잴 때는 얼마나 깊어졌는가?
- * 결국 그 물은 얼마나 깊어 졌는가?
- * 강둑에서는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 강이 흘러가는 곳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 * 그 나무의 열매와 잎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었는가?
- * 본문에서는 열매가 무엇을 위한 것이 된다고 말해지고 있는가?
- * 본문에서는 잎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되는가?
- * 강이 흘러 갈 수 없었던 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질문 정리

- 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 3) 천사는 무엇을 맨 먼저 측량했는가?
- 4) 에제키엘이 알고 있는 성전 내용 중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5) 천사가 강을 측량할 때 얼마큼씩 멀리 측량했는가?
- 6) 에제키엘로 하여금 건너가보도록 허용된 세 가지 깊이는 무엇인가?
- 7) 마지막 깊이는 얼마나 깊었는가?
- 8)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9) 강가에 누가 서 있었는가?
- 10) 강물이 닿는 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 11) 살아있게 만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 12) 이런 장소는 어떻게 남아있는가?

13) 나뭇잎은 무엇에 쓰였는가?

질문의 답

1) 바빌론 2) 예루살렘 3) 성전 4) 물 5) 천 큐빗 6) 발목, 무릎, 허리 7) 머리
너머까지 8) 나무 9) 어부 10) 건강하게 된다 11) 짠물로 13) 치료

23

느부갓네살의 꿈

머리말

다니엘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서 안에 알맞은 장소를 정해 주셨다. 유다왕국의 함락과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한다.

성서 본문: 다니엘 제 2장

2장: 1. 느부갓네살왕 제이 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알아내려고 미술사, 술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3.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4. “임금님, 만수무강을 뵙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더미로 만들리라. 6.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7.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 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8.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9. 너희가 내 꿈을 알아 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렵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10. 점성가들은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묻은 적이 있습니까? 11. 임금님께서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12.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재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13. 재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14.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륙이 바빌론 재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15.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륙이 그 사정을 알려 주자 16. 다니엘은 자기가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17.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 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18.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재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19. 그 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21.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재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어라.

21.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어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23.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륙을 찾아 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륙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 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 온 유대인입니다.” 아륙의 말을 듣고 26.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나?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나?”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재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라도 밝혀 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28.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30.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 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31.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2.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요, 33.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들은 산 같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36.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임금께서는 왕이실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38. 하느님께서서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39.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놋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40.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부습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만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웅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42.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웅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43.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웅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웅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44.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45.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놋쇠와 웅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46.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47.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48.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재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49.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해설

요시아 왕이 노력한 대대적인 개혁정치는 유다왕국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선하게 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정복당했고, 극빈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두 명의 대 예언자가 이러한 포로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예제키엘과 다니엘이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4개의 대 예언서들이다. 애가서는 사실상 예레미야서의 속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 첫 번째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집단은 다른 포로집단들과는 아주 달랐다. 다니엘서 1장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이 고향을 떠날 당시 그가 단지 어린 소년이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들은 이미 고향 땅에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교육받았다. 즉, 유다왕국 내에서 왕족의 자녀들은 대 성직자의 특별한 보호 하에 양육되었던 것이다. 다니엘을 포함한 네 명의 젊은이들은 비록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스스로의 종교를 지키는데 대단히 용감했었다. 제 1장 8-1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를 어떻게 증명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 1장의 마지막 네 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우리가 의를 부르짖다가 행여나 어떤 곤경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불행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의를 행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해주기도 한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창세기 41장 15-16절을 읽어

보자. 본문 2장 27-30절을 읽어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체가 스스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알도록 해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본문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느님을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했음을 발견한다. 왕이 다니엘을 바빌론의 통치자로 내세운 것은 하느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신감에 넘치는 자 혹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의심쩍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뢰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올바르게 행하려고 애쓴 이들로서 타인의 복지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위에 자신을 놓으려는 시험에 노출될 때 혹은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이나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들에 대해 경멸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본문의 다니엘의 행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있는 것이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선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문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이야기를 상기 시켜준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도록 하자.

- * 누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갔었는가?
- * 왜 주님은 그를 잘 키우실 수 있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가?
- * 무엇이 파라오의 주의를 끌게 하여 그가 파라오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 * 그는 파라오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 * 파라오는 그에게 어떤 벼슬을 주었는가?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네 권의 대 예언서들의 순서는 어떠한가?
- * 대 예언서들에 “대”라는 어휘가 붙은 까닭은 무엇인가?
- *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형상의 머리 부분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가슴과 두 팔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정강이는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는가?
- * 이 형상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 무엇이 상을 부수었는가?
- * 부순 후에 그 돌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다니엘은 그 형상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했는가?
- * 이 형상의 다른 부분들은 무엇을 그리는가?
- * 왕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 다니엘은 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왜 주님은 언제나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계발해 주실 수 있으셨는가?
- 3) 다니엘 당시 누가 통치했는가?
- 4) 이 왕은 그 나라의 현자들에게 무엇을 대답하라고 요구했는가?
- 5) 다니엘은 그 대답을 어떻게 구했는가?
- 6)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인가?
- 7) 이 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가?
- 9) 그 발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 10) 어떻게 형상이 파괴되었는가?
- 11) 형상을 부순 돌은 무엇이 되었는가?
- 12)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느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3) 그 왕은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그의 믿음 3) 느부갓네살 4) 왕의 꿈을 재생하고 해석함

- 5) 기도를 통해 6) 큰 상(형상) 7) 금 8) 은, 동, 철 9) 철과 진흙
10) 돌 11) 산같이 큰 바위 12) “하느님들의 하느님” 13) 온 지방의 통치자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머리말

우선 소 예언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한 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서 본문 : 아모스서 제 8장

8장: 1.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 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하고 내가 아뢰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젠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3. 그 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간 데마다 버려진 시체 투성이가 되리라.”

4.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이,

5.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빛돈에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켄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 먹어야지”
하는 자들이.
7.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8.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오랐다가 잦아들리라.
9. 그 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10. 순례절에도 통곡소리 터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치면
상여 소리 구슬피 퍼지리라.
모두들 굽은 배를 허리에 걸치고
머리를 밀며 외아들이라도 잃은 듯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은 이런 비극으로 끝나리라.

11. 나 야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 말리라.
동기간의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뭇 증오심에 불타올라

12. 끝내 양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데만에 불을 지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3. 나 야훼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토를 넓힌 죄 때문이다.

14. 라빠성에 불을 질러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날
회리바람과 함께 살라 버리고,

15. 백성을 다스리던 왕은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 야훼의 말씀이시다.

해설

아모스는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왕 보다 삼대 앞선 왕인 우찌야 왕 시대에 살았다. 그는 베들레헴 남쪽에서 6마일 정도 떨어진 드고아 마을 출신이었다. 우리는 7장 14-15절에서 그가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 수련생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의 백성, 에돔인들, 암몬인들 그리고 모압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말씀들을 주셨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에게는 말씀뿐만 아니라 환상도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이 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받아써야 함은 알고 있었다.

본문은 아모스가 과일 바구니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몇 가지 죄악상을 지적해 주셨다. 하지만 5절의 첫 부분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예배를 위한 율법의 일부를 형식적으로나마 계속 준수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과 28장 11절을 보면, 새 달의 시작에 관한 율법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준수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들의 법령들에 대한 준수는 역겨움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신앙인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더라도 예배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대화의 화젯거리만을 염두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계명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개역 성경의 5절에는 「에바」와 「세겔」이 서술되어 있다. 에바는 건조된 곡물의 히브리 계량단위로서, 우리말로는 「되」나 「말」의 표현이 적절하다. 세겔은 주조되지 않은 화폐의 무게를 잴 때 쓰는 계량단위이다. 따라서 그들이 저울이나 저울추를 어떻게 속였는가를 알 수 있다.

본문에서 특별히 흥미를 주는 구절은 제 11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배웠다. 영적 의미란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의미로서, 안쪽 의미 또는 내적 의미 곧 속뜻을 의미한다. 하지만 때때로 이 의미는 글자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지기도 하는데, 11절이 바로 그러한 구절중의 하나이다. 기근이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양식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구절에서 주님이 신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심을 보게 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4장 13-14절을 읽어보면, 아모스서의 이 구절이 복음서들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굶주림” 또는 “배움에 목마름”이란 표현을 들을 때 그 뜻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돌이켜 보자. 상징적 언어란 아주 오래 전 사람들이 인간의 가시적인 현상들과 사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과 상응됨을 알고 만들어서 사용하던 언어이다. 이스라엘 왕국 같은 나라가 아주 이기적으로 되고 주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의 종교가 아바위꾼 수준처럼 끝만 번드레한 종교로 전락되었을 때, 그곳에 남아 있는 선량한 소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이 의미하는 바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마태복음 15-16절을 읽어보자. 우리는 이 구절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복음서 시대에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했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 곧 선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는가?
- 2) 왜 우리는 그 책들에 “소”라는 말을 붙이는가?
- 3) 이 책이 쓰여진 가장 이른 연대는 언제인가?
- 4) 이 책 중 마지막 세 권의 연대는 언제인가?
- 5) 이 책들 중 아모스서는 몇 번째에 들어있는가?
- 6) 그는 언제 살았는가?
- 7)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8)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9) 그는 누구를 향해 예언했는가?
- 10) 본문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 11)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12)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12권 2) 짧아서 3) B.C. 800년 4) B.C. 400년 5) 3번째
- 6) 우찌야 시대 (약 B.C. 800년) 7) 드고아 8) 목부
- 9) 이스라엘,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족들 10) 여름과일 한 바구니
- 11) 속이고 흠치고 12) 국가가 망한다

25

강림에 대한 예언

머리말

성경의 두 부분과 단어 「Testament, 성약」의 의미를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말라기서 3장 (개역 3,4장)

3장: 1.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 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뿔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뚱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이웃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6. 나는 야훼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7.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 가겠습니까?”하고 묻는다.

8.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9.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10.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공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1.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출을 축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2.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못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3.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14.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배운 입을 열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15.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은가!’

16.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책에 적어 두고 잊지 않으리라.

17. 내가 나서는 그 날에 가서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 주리라. 18.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19.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검불처럼 타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 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 21.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 날이 오면, 나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 채처럼 짓밟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2.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과 규정과 계명을 되새기도록

하여라. 23. 이 아훤이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24.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해설

우리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70년 후에 거룩한 땅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된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포로가 된 백성들 모두가 귀환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바빌론에서의 생활을 넉넉하게 여겨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귀환하는 이들에게 돈이나 양식 등을 주며 도와주었고, 페르시아 왕은 과거 바빌론 왕이 강탈한 성전의 집기나 보물들을 되돌려 보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은 지연되고 말썽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언서에서 언약궤가 다시 제자리에 안치되었다는 언급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후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하깨와 즈기리야 그리고 말라기라는 세 명의 예언자가 있었다. 단어 「말라기, Malachi」는 히브리어로 “나의 전달자 또는 특사”라는 의미이다.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예언했지만, 특별히 본문의 예언들은 신약 성서와 구약성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다.

3장 1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될 특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언약의 사자(특사)”로서 주님 자신에 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첫 번째는 두 번째를 위한 준비임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심으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과의 새로운 계약 또는 동의를 만들 것임이 예언되고 있다.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4-35절과 마태복음 5장 17-18절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새로이 만드신 계약이 사실 오래 전부터, 즉 구약 성서에 있어 왔던 계명들을 지킴에 기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새로운 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서에 언급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약 성서에서 강조해온 순종이라는 명령과 더불어 한 가지 사항이 더 요구된다는 말이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류의 기준은 각자의 관심사가 무엇에 우선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즉,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우선시하는 이들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올바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들로 분류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말라기를 통하여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고집하는 길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로 되돌아온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변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심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말라기의 예언이 있는 후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떤 예언자도 그 땅에 보내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를 지킴에 있어서 의례적인 형식만을 준수했을 뿐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사항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인격적인 기반은 우리가 자라난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장 먼저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자란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되며, 주님에 대한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됴됨이와 삶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들도 많다. 그들 역시 좋은 의도심은 가지고 있으나 환경적인 기회가 없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 요시아 왕에 대한 공부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그가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 역대의 왕들이 주님께 얼마나 반역했고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 얼마나 불순종 해왔는가를 심각하게 느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몰라야 했던 이유도 있었다.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행해왔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천등과 번갯불 같은 전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희망 따위는 아예 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는 그들이 행한 것이 나쁘다는 정도의 인식만이 그들에게 있어지도록 한 뒤 그들로 하여금 나쁜 행동들을 포기하도록 격려하시면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여 점차 올바른 길에서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차차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더 심오한 것들을 배울 준비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선한 이들을 인도하신 방법이다. 그러나 성직자들과 바리새이파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진실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러한 이기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오로지 더욱 부유해지고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것들만 가르쳤다. 이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읽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선한 이들에게도 말씀에 무지하여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특사가 보내져야 했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분의 오심이 악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 주님의 오심은 선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제 12절(개역 4:2)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오심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는가?
- * 주님의 길을 준비할 특사는 누구인가?
- * 그는 무엇을 한다고 예언되었는가?
- * 이 준비는 왜 필요했는가?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언제 예언되었는가?
- 3) 세 권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은 누가 예언했는가?
- 4) 말라기란 무슨 뜻인가?
- 5)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6) 말라기는 어떤 큰 예언을 하고 있는가?
- 7) 그는 그분의 오심이 무엇 같다고 말하는가?
- 8) 그분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9) 그분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10)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내진다고 했는가?

질문의 답

- 1) 12 2)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3) 말라기 4) 나의 특사
- 5) 십일조 법에 불순종함 6) 주님의 오심 7) 정의의 태양
- 8) 그들을 짓밟으리라 9) 그들을 치료해 주리라 10) 엘리야

26

세레자 요한의 출생

머리말

구약 성서를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배경의 설명을 추가해 왔으나 신약 성서의 공부에서는 하나의 지리적인 배경만 있게 된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였다. 본과를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바다, 가파르나움, 요르단강 건너지역 그리고 예리고의 지도상 위치를 기억해둔다. 본문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나 주님의 탄생을 성탄절 공부에서 다루지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구약성서와의 연결점을 강조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장

1장: 1.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3.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께 써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하는 성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야였고 그의 아내는 성직자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8. 어느 날 즈가리야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성직자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9. 성직자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 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 즈가리야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10. 안에서 즈가리야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12. 이것을 본 즈가리야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그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즈가리야,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16.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17.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18. 이 말을 들은 즈가리야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말하자 19.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알려 주었는데 20.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즈가리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22.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즈가리야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병어리가 된 즈가리야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시늉만 할 뿐이었다. 23. 즈가리야는 성직자 당번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 왔다. 24.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다섯 달 동안 들어 앉아 있으면서 25.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 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6.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 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29.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31.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33.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34.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35.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37.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38.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 갔다. 39.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 가서 40.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 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42.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43.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44.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46.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48.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50.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51.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52.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53.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54.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하였다. 61.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하며 62.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가리야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64. 바로 그 순간에 즈가리야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67. 아기 아버지 즈가리야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68.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찾아 와 해방시키셨으며,
 69.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심이요, 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시어 75.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76.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77.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79.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80.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해설

우리는 이제 신약 성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서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것으로서 따로 취급하고자 한다.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에 관한 것이다. 말라기서 3장 첫 절에는 두 명의 특사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다. 첫 특사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다른 특사는 “언약의 사자(특사)”로서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두 가지 약속들의 성취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말라기서의 예언은 주님의 오심이 사악한 자들에게 파괴적인 불이 되며 선한 이들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이들의 부류에 속한 이가 바로 즈가리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첫 대성직자였다. 주님께서서는 크게는 레위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성직자 직을 맡도록 그들을 다른 지파들로부터 분리하셨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별도의 영역을 배당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 내에 흩어져 살면서 그 영토내의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도록 했다.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한 후 성직자들은 여러 조로 나뉘어서 성막을 살폈으며,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 년에 한 달씩 조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했다. 분향제단은 성소 내에 설비되어 있었는데, 이 제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 향을 태우는 일은 성직자들이 해야 할 예배의 정규항목이었다.

본문의 뒷부분은 천사가 말한 약속의 성취에 관한 것이며, 이는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됨도 보여준다. 요한이 출생한 후 즈가리야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신앙 고백과 주님에 대한 찬미였다. 찬미 또는 찬송이란 주안에서 “복됨”을 뜻한다.

주님 시대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북쪽에는 갈릴래아,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그 두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이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난 뒤 아시리아로부터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들이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지역에 살고 있었다. 갈릴래이는 “이방인들의 갈릴래아”라고 불릴 정도로 타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소원하며 구약 성서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소수의 선한 백성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예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특별히 예언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언된 시기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어머니 역할을 맡도록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마리아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23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여기서의 두 이름은 주님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임마누엘(Immanuel)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며, 예수(Jesus)란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말씀은 이 두 이름에 의해 탄생될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말씀에서 네 번이나 언급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절들에서 볼 수 있다. 스웨덴복음은 가브리엘이라 불리는 천사란 한 명의 천사가 아닌 어떤 단체로서의 천사들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 자신이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에서 배우기를 사랑하며 동시에 가르치기를 사랑하는 천사들이 모인 사회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사촌인 엘리사벳에 관한 일을 말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벳을 보러 갔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주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낳게 될 여자임을 보여 주셨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다. 그리고 이 두 단어들은 모두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한다. 엘리사벳이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확증한 후 마리아가 노래한 46-55절은 오늘날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라고 불리는데, 이는 특별히 성탄절 때에 자주 불리는 찬송이다.

천사는 즈가리야에게 “네게 태어날 아들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라고 전했다. 영어 성경(KJV)에서의 Elias(엘리어스)는 히브리어 Elijah(엘리아)의 그리스어적인 발음이다. 과거 엘리야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상을 나열하여 보여주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고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한의 메시지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즉,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라는 것이었다. 요한은 과거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살았다(마가복음 1:6). 또 그의 말에는 권능이 있어서 모든 이들이 그가 예언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원했던 이들은 그를 환영하며 믿으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을 세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이라고 한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자기 고집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심정과 지성을 열어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자기의 결점이나 과오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다. 어찌됐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심정에 그분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는 대로 즉시 그분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다가”와 계신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즈가리아의 고백은 무엇인가?
- * 엘리사벳의 선조가 누구라고 말해지고 있는가?
- *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즈가리아는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천사가 그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 어떤 징조가 그에게 발생했는가?
- * 본문에서 즈가리아 외에 누가 천사를 보았는가?
- *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천사는 마리아가 나올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전했는가?
- *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명령되어져 있는가?

질문 정리

- 1)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
- 2) 말라기는 어떤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가?
- 3) 말라기는 어떤 두 특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가?
- 4) 주님이 오실 당시 그 땅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가?
- 5) 주님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6) 주님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7) 첫 특사는 누구라고 했는가?
- 8) 본문에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 9) 그 천사는 누구에게 먼저 왔는가?

- 10)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즈가리아에게 주었는가?
- 11)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12) 천사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13)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4) 우리는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15)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6) 왜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는가?

질문의 답

- 1) 말라기 2) 주님의 오심 3)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사와 언약의 특사
- 4)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과 선해지기를 원한 이들 5) 풀무불에 타듯이 된다
- 6) 고침을 받는다 7) 엘리야(요한) 8) 가브리엘 9) 즈가리아 10) 아들을 갖는다
- 11)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12) 마리아 13) 아들을 가진다
- 14)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 15) 회개하라! 16) 세례를 주었기 때문

27

주님의 탄생

머리말

본장은 교회의 절기중 하나에 속하나 성서를 차례대로 배열하고자 이곳에 삽입한 것이다. 성탄절에 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성탄절에 대한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장 1-20절

2장: 1.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2.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5.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 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7.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8.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하고 말하였다. 13.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 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사실을 보자”하면서 16. 곧 달려 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18.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해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불리질 것이며 이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전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해 가셨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부닥치는 시험들이나 악함을 직접 느껴 보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며 극복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주님께 관해 배우고 그분의 도움으로 악에 대항하면, 우리는 우리들 속에 깊숙이 틀어박힌 악의 권세로부터 풀려나 구원된다.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란 뜻이며, 그리스도(christ)란 그리스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다. 올리브기름을 가지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성별(聖別) 되는 모습이다.

여호와께서 기꺼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심이 어땠을까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우리의 연력이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다.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마태복음서에는 거룩한 땅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았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이 주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는가는 고대 교회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할 미스터리일 것이다. 그들은 놀랍게도 별을 관측함으로써 주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대 말씀에 있는 예언들을 아주 흠모했고, 고대 말씀으로부터 전해오는 지식들이 그들에게 전승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앎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대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막기도 한다. 이런 인간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서들에 언급되는 바리새이파 사람들이다. 진리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거룩한 땅에 있는 목자들은 그들의 가축 때와 더불어 살면서 목초지를 찾아 가축들을 이리 저리로 끌고 다녔다. 그리고 밤에는 가축을 우리 안에 두고 사나운 짐승의 습격으로부터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불렀고, 양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서 목자들이 부르면 이내 다가오곤 했다. 양은 매우 온순하며 남을 해치지 못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양은 신뢰와 순진을 상징한다. “순진(純眞)”이란 단어를 라틴어의 어원에서 보면 “해치지 않음”이란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순진과 신뢰를 흠모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목자에 의해서 상징되고 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지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주님께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던 베들레헴 근교의 목자들에게 비친 그분의 영광스

런 빛은 저 멀리 떨어져 비춰주는 별빛이 아니라 그들 바로 위 아주 가까운 하늘이 열린 빛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즉각 믿고 그분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리고 의심 없이 믿는 마음과 더불어 그 마음으로 꾸준히 밀어붙이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천국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는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나, 지상에서는 진실로 선한 인격의 마음 안에서만 있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 22:35-40) 가르치신다. 이 가르침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삶의 지표이며,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사건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사건인가?
- *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태어났는가?
- * 그는 어떻게 이 길을 예비했는가?
- * 주님께서는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왔는가?
- * 왜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 * 하늘의 군대는 세상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 *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는 뒤 목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 * 그들은 주님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 목자들은 누구에게 그분에 관해 말해주었는가?
- * 누가 목자들이 말한 것들을 유념해 두었는가?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2) 주님께서는 대략 몇 년 전에 지상에 태어나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4)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5)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 6) 그분의 탄생이 알려진 이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은 누구인가?
- 7) 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 8)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졌는가?
- 9) 그 목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가?
- 10) 누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11)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2) 천군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목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발견했는가?
- 14) 목자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가?
- 15) 누가 목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했는가?
- 16) 예수란 누구인가?
- 17) 왜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가?
- 18)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 2000년 전 3) 베들레헴 4) 마리아
- 5) 요셉 6) 동방박사 7) 별을 보고... 8) 목자 9)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 10) 천사 11)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 12)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13) 마구간 14) 그들이 만난 사람 15) 마리아 16)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 17)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심 18) 속량, 모든 이로 구원 가능하게 만드심

28

나인성의 과부

머리말

제 1권에서 복음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다루어 같은 사건의 중복을 피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님 생애의 초구나 세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연관된 사항들은 각 권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7장 1-30절

7장: 1.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2. 마침 그 때 어떤 백인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였다. 3. 백인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4.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그 백인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6.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사람이 못 되며 7. 감히 주님을 나가 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낮겠습니다. 8.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군중을 돌아다보시고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11.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 갔다. 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다. 13.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14.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15.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19.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하였다. 20. 그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십니다”고 말하였다. 21. 바로 그 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다. 22.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24.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 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려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26.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27.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28.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들였으나 30.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해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지난 공부를 재조명해 보자.

- * 누가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보내졌는가?
- *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 누가 즈가리아에게 장차 있을 일을 말해주었는가?
- * 즈가리아에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는가?
- * 우리는 요한이 출생한 후 즈가리아가 한 첫말을 뭐라고 부르는가?
- * 즈가리아 외 누구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졌는가?
- * 천사는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 *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 헤로데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주님께서 피신한 나라는 어디인가?
- * 주님께서 성장하신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 열두 살이 되던 해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곳은 어디인가?
- *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주님은 몇 살이셨는가?

- * 그분은 어디서 요한을 발견하셨는가?
- * 그분을 위해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세례를 베풀자 하늘로부터 어떤 징조가 주어졌는가?
- *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사십 일 동안 어디서 머무셨는가?
- * 거기서 그분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주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끝낸 직후 시작되었다. 그분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 주셨다. 본문은 주님께서 베푸신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기적이란 단어는 “놀라운 일”라는 뜻이다. 성경상의 기적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다.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공부하다 보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고침을 받는 이가 먼저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인식한 후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도울 수 있으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다.

백인대장이란 백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로마 제국의 군인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인들을 상당히 미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백인대장을 좋아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백인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백인대장의 종을 낮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청을 받아서 백인대장의 집으로 향하셨으나, 백인대장은 그분께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의 종이 낮게 될 것이라고 청했다. 주님께서서는 백인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기록된 기적은 백인대장의 종을 낮게 했던 것보다 더욱 경이롭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가 갖는 주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므로 생명을 초월한 권능을 갖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가 중병에 걸려 몹시 아플 때 우리가 회복되는지 아니면 죽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의사가 치료될 것이라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해 왔던 껍질인 육체를 두고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는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영계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늘 영계에 그 거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의식하기

어렵지만 때가 되어 육신의 껍질을 벗게 되면 금방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서, 영계에서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삶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님께서서는 본문의 기적에서 과부의 아들을 영혼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서 다시 깨어나도록 하셨을 뿐이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여러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기적들이 있다. 열왕기상 17장 8-24절, 열왕기하 4장 8-37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1-42절과 49-56절을 찾아보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충실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누가복음 3장 19-20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한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사명을 실패한 것처럼 느끼며 선교 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세례를 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 제자를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대답하셨다.

요한과 같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이해성으로 주님이 메시아이시요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심을 알고 이해하며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봐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도 이해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고 믿던 옛 사람들의 믿음보다 한층 더 높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2)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 통고했는가?
- 4)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5) 같은 천사가 어떤 다른 통보를 했는가?
- 6) 누구에게 위의 통보는 있어졌는가?
- 7)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두 개의 친숙한 노래는 무엇인가?
- 8)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9)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10) 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 11) 오늘 본문의 첫 기적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 13)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수 있는가?
- 14) 요한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15)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6) 주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누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 2) 즈가리아와 엘리사벳 3) 천사 가브리엘
- 4) 요한의 출생까지 병어리가 됨 5)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 6) 마리아
- 7) 축가와 찬미가 8) 회개하라 9) 그들에게 세례를 줌
- 10)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11)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심
- 12)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심 13) 그분은 생명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
- 14)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이십니까?”
- 15)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16) 예언자
- 17)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열 두 사도의 파견

머리말

본문은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장에서는 열 두 사도의 파견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이는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9장 1-36절

9장: 1.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2.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고 보내시면서 3.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5.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6. 열 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 7. 한편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8.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 왔기 때문이다. 9.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 보려고 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싸이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11.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뒤쫓아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열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그러자 13.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을 사 오라는 말씀이십니까?”하고 물었다. 14. 거기에 모인 군중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니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대충 오십 명씩 떼지어 앉히라고 하셨다. 15.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16.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들였다니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18.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하고 물으셨다. 19.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22.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성직자 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4.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30.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2.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3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35.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36.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앞서 했던 공부를 복습해보자.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주님께서는 로마군의 백인대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 * 세례자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 그 당시 요한은 무엇을 알고자했는가?
- *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큰 매력을 느끼도록 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 받고자 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이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 그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에 의해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를 주님께에서 배우고자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에서 올바른 삶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제자란 “배우는 자”를 의미한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똑같이 공부하지만 더 많이 배우는 학생들을 보고 이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똑똑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모두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의 대부분은 배우고자 하는 바램이나 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아무리 좋은 학생이라도 배우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결코 우등생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스스로 충분히 공부했다고 자만하는 경우도 결국에는 뒤처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바는 하느님과 천국에 관한 것, 우리 영혼에 관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선하며 유용한 삶을 꾸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바램은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몇 사람을 발견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특별히 가까이 있게 하시면서 타인들에게 가능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도록 해 주셨다.

본문의 7-9절과 18-20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헤로데조차도 예수님께서 발휘한 능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하느님으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깝게 따라 다닌 이들은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 중 세 명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환상은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믿었던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상이점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이란 뜻이며, 히브리어의 “메시아”도 이와 같은 뜻이다. 때가 차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진 자” 또는 “하느님의 아들”라고 부르는 인간의 형체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왔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믿었던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주님의 특별한 종으로서 그들에게 지상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고백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아들이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구약성서 예언들의 성취이며, 육안에 임하신 여호와를 의미한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이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분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도록 해 주셨다. 이는 그들이 영계에 가서 그분을 뵈을 때와 같은 모습이다. 이 환상을 다른 말로 변모(transfiguration)라고도 한다. 변모란 “모습이 변함”이라는 뜻이다. 이 환상에서 모세는 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들을 표현한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그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환상의 끝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계심을 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심을 진실로 믿을 때 이 환상은 우리의 이해성에서도 보이게 된다. 우리는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찾되, 복음서들이 증거 하는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으셨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 사도란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 사도들은 무엇을 선포하였는가?
- *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분부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생활하라고 이르셨는가?
- * 사도들이 군중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고 주님께 청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는가?
- * 그들이 가진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했는가?
- * 주님께서 그 음식에 축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세 명의 사도들은 어디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 * 세 명의 사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보여 졌는가?
- * 그들이 본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 * 베드로는 무엇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 * 그들을 덮어서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 *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뭐라고 말했는가?
- * 구름이 걷히자 그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질문 정리

- 1) 백인대장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 2) 주님께서는 백인대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4) 세례자 요한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5) 요한의 특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6) 주님께서는 그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그분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이때 거기에는 몇 명의 사도들이 있었는가?
- 9)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 11)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했는가?
- 13) 그들은 어디서 머물라고 했는가?
- 14)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 15) 본문에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 16) 그 기적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17)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 18) 어떤 세 사도들이 주님과 가장 친근했는가?
- 19) 그 사도들은 무엇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20) 이 환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 21) 우리는 이 환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 22) 열둘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3) 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이 변모를 볼 수 있었는가?
- 24) 우리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2) 그는 큰 믿음을 가졌다 3) 아들을 살리심
- 4) 감옥에 들어갔다 5)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6) 너희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 7) 위대한 예언자 8) 열 둘 9)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침 10) 하느님의 나라
- 11) 온 동네에서 병을 고치고 전도함 12) 어느 여분의 것도 지니지 말라
- 13) 사람들의 집에서 14)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 15) 오천명을 먹이심
- 16)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 17) 하느님의 그리스도
- 18) 베드로, 야고보, 요한 19) 주님이 회개 빛나심 20) 모세, 엘리야 21) 변모
- 22) 복합체 안의 모든 선과 진리,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애쓸 때 알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

23)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

24)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과는 자유로이 나누되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머리말

본문에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까지는 몇 개의 장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몇 장 안에는 비유, 제자들을 가르침, 기적 그리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 상태를 폭로하시는 것 등이 들어 있다. 제 10장의 첫 부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금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을 먼저 읽고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명확한 빛으로 비춰 보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0장 25-42절

10장: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26.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하고 반문하셨다. 27.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28.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30.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31. 마침 한 성직자가 바로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2.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34.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35.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36.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8.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음에 들었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었다. 39.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해설

주님께서 본문에서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율법으로부터 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도록 하셨다. 이 율법 교사가 인용한 율법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

29절에서 “스스로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율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변명하려 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의 첫 번째 사항은 잘 지키고 있다고 느꼈지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주님께서 이웃이란 자신이 속한 종교와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해주시기를 은근히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바라던 것 대신 비유를 주셔서 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해지도록 하셨다.

예루살렘은 언덕사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예리고는 사해와 가까운 곳으로 아주 낮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지역간의 거리는 약 18(29km)마일 정도인데, 왕래되는 길은 거칠고 가파르며 들쭉날쭉한 암석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강도들이 암석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여행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성직자들은 당시 가장 찬양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지파 사람 또한 성직자와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며 미워한 부류에 속했다. 그 이유는 오래 전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붕괴되고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텅비어버린 그 땅에 외부로부터 강제 이주시켜진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로 하여금 종족이나 신분 또는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한 자비와 친절을 보고 인정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웃”이란 “가까운 것”이란 의미가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려는 마음인 이기심은 사람들을 언제나 서로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 우리가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도우려 할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다.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 불린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선을 돌보며 사랑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선을 돕도록 애써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종종 스스로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여행은 우리가 가진 높은 상태인 이상과 선한 해결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일 또는 즐거움으로 내려감을 그린다.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닥친 시험이 우리의 선한 의도나 생각들을 강도질 해가고 영적으로 우리를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곧 우리를 다시 높은 상태로 들어 올려 사랑과 좋은 충고(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 주며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 갈 때까지 보살펴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교훈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분은 오랜 뒤에 이 비유에 담긴 진실함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의 변명에 대한 구실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상당하다. 우리는 이들 중에서 남을 위해 행한 어떤 행위를 과시하며 자신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고 말하거나 행위로서의 선한 일들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며 소리 높여 주장함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뒤에 바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놓아두신 것이다.

주님께서 마르타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수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적인 선함들은 우리의 삶에 유용하며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마르타와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께 관해 배워야 할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측면에서 이웃을 돕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동적인 면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영예를 자신에게 돌리게 되고 결국 그 선한 일속의 선을 자신이 취해 버리고 만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가? (9장 1절 참조)
- * 사도란 무슨 뜻인가?
- * 어떤 능력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는가?
- *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들은 누구인가?
- * 그들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 본문의 비유는 누구에게 말해지고 있는가?
- * 당시 모세의 법을 환히 알고 있었던 계층은 누구였는가?
- * 율법 교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 우리는 가장 큰 두 계명을 뭐라고 부르는가?
- * 주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는 동안 마르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마르타는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했는가?
- * 주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사도란 무엇인가?
- 2) 주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는가?
- 3)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 4) 그들은 전도 때에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도록 되었는가?
- 5) 사도들이 군중들을 먹이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6)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 7)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 8)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는 누구인가?
- 9) 이 세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10)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께서서는 이 대답을 위해 어떤 책을 참고 하셨는가?
- 12) 율법교사는 무슨 대답을 발견했는가?
- 13)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4)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어떤 비유로 답하셨는가?
- 15) 강도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가?
- 16)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하고 지나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17) 누가 이 사람을 도왔는가?
- 18) 사마리아인들이란 누구인가?
- 19) 이 비유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0) 마리아와 마르타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1) 주님께서는 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22) 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즉시 이어지는가?

질문의 답

- 1) 파견함 2) 열 둘 3) 하느님의 나라 4) 영접하는 자들
- 5)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불리셔서
- 6)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7)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 8) 베드로, 야고보, 요한 9) 변모
- 10)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1) 성경
- 12) 주님과 이웃사랑 13)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14) 선한 사마리아 사람
- 15)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16) 성직자, 레위인 17) 사마리아 사람
- 18) 아시리아 나라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의 후손 19)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라
- 20)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타는 봉사하느라 분주했다 21) 마리아
- 22)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법을 배우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머리말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문이 언급된 앞부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소 친숙하지 않게 여겨지는 뒷부분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영혼의 눈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간직해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찾으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

인 본보기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1장

11장: 1.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2.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 놓을 것이 있어야지’하고 사정을 한다면 7.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하고 거절할 것이다. 8.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 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겠느냐? 9.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1. 생선을 달리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12. 달걀을 달리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병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병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더러는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으며 16.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18.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19.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20.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하면서 25.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26.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하고 외치자 28.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하고 대답하셨다. 29. 군중이 계속 모여 들고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고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30. 니스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사건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31.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32. 심판 날이 오면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33. “등불을 켜서 숨겨 두거나 뒷باك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방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 가 식탁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예수께서 손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깜짝 놀랐다. 39.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40.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41.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십분의 일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43.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 45. 이 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희에게도 모욕이 됩니다”하고 투덜거렸다. 46.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건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 놓고 자기는 그 집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47.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48.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49.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고 하셨던 것이다. 50.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즈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렸고 자기도 들어 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53.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54. 예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해설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누가복음

서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서의 것보다는 우리에게 덜 친숙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본문의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하나는 제 2절의 마지막 문장의 순서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순서의 원문인 그리스어에서도 영문과 같이 마태복음의 것과도 그 순서가 일치함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상에서 행하는 것 곧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뤄지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의 뜻을 하늘에 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에 사는 우리에게 있는 하늘이란 곧 우리 안에 있는 심정과 지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리가 우선 심정과 지성 안에 쓰인 후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져야 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빛” 대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사용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복음서들에서 주어진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기도문에 대한 주님의 설명에서 소개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빚진 것 곧 은혜 입은 것을 탄감해 주심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5절로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은 후 마태복음 6장 7-8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 바로 이전에 있는 구절이다. 두 복음서들의 각 문단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읽어보자. 주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준비를 갖추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 “no”라고도 응답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 “no”라고 응답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마태복음서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문단은 다양한 삶의 형태가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하신 산상설교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대부분은 주님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잘 교육된 사람들이며, 그들의 일과는 구약 성서를 읽고 베끼면서 율법이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2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바리사이파인들이란 여느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하다고 분류된 계층이었다. 그들은 유대교의

대표자 역할을 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볼 것이라고 자처했다. 주님께서 이들에 관해 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5-7절에서 찾아보자. 이러한 두 무리는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편리하도록 모세의 율법이다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나 이런저런 규정들을 잔뜩 덧붙여 놓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줄도 몰라서 주님의 법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율법학자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던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인식하고 환영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헤로데처럼 자신들 외에 누군가가 그 땅에서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9-40절에서 “예언자 요나의 기적”으로 주님께서 의미하신 바를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언급하신 것이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요나서 제 3장에서 볼 수 있다. 남쪽 나라의 여왕이란 세바의 여왕을 말한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 1-10절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구약 성서를 공부해 두어야 한다.

주님께서 제 33절에서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도록 뒷박으로 덮어두지 말라고 하시고,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속의 진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의 등불은 손잡이가 달린 조그만 항아리 모양으로 된 접시였는데, 그 끝에는 불꽃이 일어나도록 심지를 단 구멍이 있었다. 제 34절의 “네 눈이 성하면”이란 옛말로는 “single”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깨끗함 또는 순수함을 뜻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보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이 구절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지 않으려 할 때가 바로 우리의 이기심이 발호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옛날의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같이 처신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아 사람들에게 그분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자 주력했다.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 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해 주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십일조란 모든 종류의 생산물에 대한 십분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데 쓰이도록 바침을 의미했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십일조를 내면서 크게 생색을 냈다.

위선자란 자신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존경하고 칭송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속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 면에서 모두 선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심정과 지성을 꿰뚫어 보셨듯이 오늘날의 우리의 속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권능이 어디서 왔다고 주장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제 16절에서 그분의 적들은 무엇을 주님께 요구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야 할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이 주님께에서 꼬투리를 잡았다고 착각하도록 한 주님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 *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십일조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기도문을 형태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 2) 율법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3)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율법학자들은 무슨 책을 공부했는가?
- 5) 위의 두 계층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6)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께서는 어떤 징조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 8) 본문에서는 구약성서의 어떤 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가?
- 9) 주님께서는 등불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위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12) 눈이 병들었다 함은 무슨 뜻인가?

- 13) 주님께서는 무슨 과오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는가?
- 14) 위선이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은 어떤 것들인가?
- 16)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질문의 답

- 1) 해설 참조 2) 성경을 베끼는 사람 3)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계층 4) 성경
- 5) 악마 6) 갈라져서 싸워 망하는 집안 7) 요나의 기적 8) 요나, 세바 여왕 9) 등경 위에
- 10) 등불을 켜서 감추어둔 자는 어리석다 11) 깨끗함, 순수함 12) 악으로 인해 보지 못함
- 13) 위선 14) 선한 체 함 15) 사람들이 보는데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며, 경건한 체 행동하고 타인을 판단함 16) 주님의 현존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했기 때문

32 큰 잔치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바리사이파인들에 대해서와 주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녔던 이유를 상기해본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율법학자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4장

14장: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 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 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하고 물으셨다. 4.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5.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8.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안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13.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15. 같이 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 1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18.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 봐야 하겠소. 미안하오’하였고 19. 둘째 사람은 ‘나는 거룻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यो. 미안하오’하였으며 20.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하고 말하였다. 21.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 와서 주님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22. 얼마 뒤에 종이 돌아 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니 23.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24.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5.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 서서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큼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29.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30. ‘저 사람은 집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을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33.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34.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35.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여라.”

해설

본문에서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고 쉽게 이해되어서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그 속에 담긴 요점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차후에 그 요점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문의 비유에서 바리사이파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명백한 가르침에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을 닫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되새겨 보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속의 내용 중 일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친분 관계를 깨도록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진정한 친구라고 여겼던 이들보다 더 나은 친구임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에서도 가르쳐지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더 큰 내용이 본문의 비유에 담겨 있다. 비유속의 잔치집 주인은 주님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높은 친구이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참석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양식을 주고 계신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진정한 잔치 음식은 영혼을 위한 음식인 것이다. 이 음식은 곧 그분의 사랑과 진리이다. 그분은 성경에서 거듭하여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지신 선한 것들을 자유롭게 먹도록 배려하고 계신다. 그분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6:35).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마실 “생명수”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4:10, 14).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해서 초대하시는데 거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비유에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핑계를 대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일이나 유희를 위해서,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용무 때문에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이나 성경을 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초대받으면 그 초대를 즉각 수락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초대되면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한쪽에 젖혀두지 못한다. 우리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자 주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며 잔치에 대한 것과 잔치 음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잔치에 참석할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가 의미하는 사람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6절을 읽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성경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언급이 많다. 성경에서의 부유한 자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매우 잘난 사람이라는 착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부유한 자라고 불리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선함과 진리를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억측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가난한 자란 선함과 지혜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님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의미함을 알고 있다면, 본문의 비유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또한 읽어 보자. 여기서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인들같이 되어버린 기독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불구자와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란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만들었다고 느껴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걸어가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자신이 무식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기에 약하며 불완전하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유롭게 제공해 주시는 도움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닿도록 노력해 가야만 한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 1절에서 누가 주님을 식탁에 초대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이란 어떤 이들을 말하는가?

- * 주님께서는 손님들에 관해 무엇을 주목시켜 주셨는가?
- *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셨는가?
- * 본문의 비유에서 잔칫집 주인은 처음에 누구를 초대했는가?
- * 처음 초대된 이는 무슨 핑계를 늘어놓았는가?
- * 두 번째 초대된 이는 무슨 핑계를 늘어놓았는가?
- * 세 번째 초대된 이는 무슨 핑계를 늘어놓았는가?
- * 주인은 잔치 음식을 먹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을 발견했는가?

질문 정리

- 1) 왜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놓으셨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과오를 보셨는가?
- 4)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주셨는가?
- 5) 그분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 6) 이들이 참석 못 한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인가?
- 7) 이들 속에 어떤 과오가 있음을 보여주는가?
- 8) 그분의 잔치를 즐기도록 발견된 사람은 어떤 이들인가?
- 9) 비유속의 잔치 주인은 누구인가?
- 10)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잔치에 초대하시는가?
- 11) 주님의 집은 어디인가?
- 12) 핑계를 댄 친구들은 누구인가?
- 13) 그분의 초대에 응한 가난한 자란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도우시기 위해

- 2) 아주 종교적이라고 하는 계층 3)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다
- 4) 큰 잔치 5) 친구들 6)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보려고, 결혼해서
- 7) 이기적이어서 무부분별함 8)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 9) 주님 10)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함유하는 그분의 말씀
- 11) 교회 12)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
- 13) 겸손이 있는 마음

33

방탕한 아들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에 뒤따르는 비유이므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5장

15장: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이것을 본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네!”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 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하며 좋아할 것이다. 7.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 닢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쫓으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 볼 것이다. 9.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 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4.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15.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7.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20.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25.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26.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다. 27.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 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29.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30.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31.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32.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 않겠느냐?’하고 말하였다.”

해설

우리는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리들이 바리사이파인들이 경멸했던 같은 유대인들로 로마제국을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사도 마태역시 세리였음을 알 수 있다.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공부하며 구약 성서를 베끼고 가르쳤는데, 특히 당시의 지도자들이 만든 각종 규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다. 본문의 세리나 죄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역시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멸했다.

사실 미국 내에는 수많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피부색이 다른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다. 특히 그들 각자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양육된 연고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제각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만큼 제각기 옳다고 믿는 것도 다른 것이다. 우리 모두는 태생이 이기적이어서 자신이 옳다고 우기거나 자신 외의 남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실수를 흔히 범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는 학문을 많이 쌓고 수양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극복하기 매우 힘든 것이다. 설사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옳바르다는 것이 경험이나 생각 혹은 추론 등으로 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을 행한 누군가에게서 물리서서 “그 친구는 구제불능이야.”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이

되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 친구가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도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연적인 속성인 이기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보고 조금씩이나마 그것들을 극복해 보겠다고 선택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속물들이 유아시절부터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잘 간직되도록 주셨던 선한 것들 중의 어느 하나를 잃어 버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진리들 중의 어떤 것을 잃게 되면, 그분께서는 그 진리 곧 그 빛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올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은전 한 닢을 찾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이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삶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잘못될 때도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인 방탕한 아들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다.

영어 단어 prodigal(방탕함)이란 “wasteful(낭비하는)”이라는 뜻이다. 작은 아들이 낭비한 상속물이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주신 우리 안에 담긴 각종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한다. 우리가 자아를 기쁘게 해줄 것만을 원하면, 우리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 자신의 상속된 재산을 탕진하고야 마는 방탕한 아들처럼 되고 만다. 우리는 방탕한 아들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낮은 상태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돼지같이 살아.”라고 말할 때 그것의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가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준비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큰아들은 외적으로, 즉 눈에 보이는 선한 생활을 행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이 관용 없이 굳어진 상태였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 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이들의 마음상태를 엿볼 수 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큰 결점은 무엇이었는가?
- *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타인들을 어떻게 간주했는가?
- * 주님께서 앞서 공부한 비유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 잔치에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 * 왜 그들은 오지 않았는가?
- * 누가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었는가?
- * 본문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교훈은 무엇인가?
- * 첫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었는가?
- * 두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었는가?
- * 세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었는가?
- *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며 큰아들은 어떤 불만을 털어 놓았는가?
- *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큰잔치의 비유는 누구를 두고 말해졌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의 어떤 과오를 지적하셨는가?
- 4) 위 비유 속에서 어떤 손님이 처음 초대받았는가?
- 5)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었는가?
- 6) 이 핑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7) 잔치 음식을 즐긴 손님들은 누구인가?
- 8)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 9) 이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이 비유들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 12) 첫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3) 둘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4) 셋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5) 방탕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작은아들은 무엇을 낭비했는가?
- 17)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8)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결국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 20)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 주었는가?
- 21) 큰아들은 이를 어떻게 느꼈는가?
- 22)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2) 엄격하게 종교생활을 한다는 계층 3) 자기 자랑 4) 친구들
- 5)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 보려고, 아내를 얻어서 6) 이기적인 무분별
- 7)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8) 세리, 죄인 9) 주님께 불평했다
- 10) 3 11) 뭔가를 잃고 찾음 12) 양 13) 은전 14) 아들 15) 낭비함
- 16) 돈 17) 먼 고장 18) 가난해지고 굶주림 19)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 20) 기쁨으로 21) 시기했다 22)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34 부정한 청지기

머리말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중요하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많은 이들에게 의문시되는 점이 자주 돌출되므로 이를 설명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될지 모르나, 두 가지 비유 모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귀결된다. 이 구절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성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3.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4.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하고 물었다. 6. ‘기름 백 말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7.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팔십 섬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8.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다.”

9.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 갈 것이다.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11.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뭇을 내어 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17.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20.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21.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22.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23.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24.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하고 애원하자 25.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26.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27.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30.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하고 호소하였다. 31.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해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공부하게 된다. 우리는 첫 번째 비유를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른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잘 돌봐야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비유의 줄거리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가 선하기보다는 주인의 채무를 거둬들이는데 약삭빠르게 행동했다고만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유의 줄거리가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해왔던 것들이 빠뜨려진 것임을 갑자기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청지기와 같은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 우리는 부주의한 습관에 젖어 들기 쉽고 이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그 누구도 일단 행해진 잘못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맞아.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잘못된 거야.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도 없고.” 또는 “나의 잘못을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등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말마저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자신의 치부가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이다. 재물(mammon)이란 단어는 아람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원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뜻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천국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민족의 시조로서 모시고 있어서 그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서의 부자는 간혹 Dives라고도 언급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부터 근원된 것으로 rich를 의미한다. 이 비유에서 알아두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부자가 나쁜 인간이며 라자로는 선한 인간이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자였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가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고 느낄 때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성경 상에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겸손한 자를 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자만으로 마음을 팍 채운 이들 곧 성경 상의 바리사이파인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외적 조건들은 저 세상 삶에서의 우리 삶의 조건을 결정짓지 않는다. 성경은 “주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비유에서의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적 소유물에만 집착하여 천국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자로는 비록 거지 신세였지만 선한 인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두 인간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는 각자 이 세상에서 선택해간 삶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그 속의 진리를 보아서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원하신다. 이 길은 선함을 사랑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행하는 길이기도 하다. 주님과 사후의 삶을 믿고자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환상이 보여 진다면, 그 사람은 환상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그러한 인간은 환상을 꿈이나 망상이라고 단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항은 인생살이의 과정에서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중심 원리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아 충족만을 추구함을 중심 원리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찍 알고 더욱 빨리 우리의 선택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선택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는가?
- * 청지기는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 들었는가?
- * 청지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가?
- *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청지기에게 창피한 것이었는가?
- * 그는 자신의 처지를 건져내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결심했는가?
- * 이렇게 결심한 청지기의 행동은 선한 것이었는가?
- * 이 행동에 대해 주인은 뭐라고 말했다는가?
- *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먼저 물었는가?
- * 그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 아브라함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다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는가?
- 2) 청지기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 3) 그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4) 그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 5) 그는 무엇이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가?
- 7) 그의 주인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9)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재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바리새이파인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비유를 바리새이파인들에게 주셨는가?
- 13)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 14)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 15)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16)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가?
- 17) 그러자 부자는 무엇을 부탁했는가?
- 18)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 19)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20)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2) 글자 상에서 부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정이 어떻게 슬기롭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제자들 2)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3) 자기 직책을 잃음
- 4) 땅을 파는 일 5) 빌어먹는 일

- 6) 작접 채무자들의 빛을 탕감해 주는 일 7) 그를 칭찬했다
- 8)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남은여생 동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 9) 그렇게 할 수 없다 10) 부유함,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
- 11) 주님을 비웃었다 12) 부자와 라자로 13) 아브라함의 품(천국) 14) 지옥
- 15) 라자로로 물 한 방울을 찍어 보내달라
- 16)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못 간다
- 17)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 해 달라 18)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
- 19)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낸다면... 20)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 21)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게 될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어야 한다
- 22) 스스로가 원래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며 자비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35

종려 주일 (3)

머리말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과 자료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 하여, 모든 밤이 이 사건에 시간을 할애해준다. 주님을 왕으로 받기 위한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통치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면 즉시 거행되는 작업이 성전을 깨끗이 함임에 주목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9장

19장: 1.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3.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4.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들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5.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 6.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열린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8.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9.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 주셨다. 12.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13.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금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보아라’하고 일렸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15.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 보았다. 16.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열 개로 늘렸습니다’하고 말하자 17. 주인은 ‘잘 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하며 칭찬하였다. 18.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다섯을 벌었습니다’하고 말하자 19. 주인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20.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랴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몫쓸 종아, 나는 바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말이야? 23.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 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하며 호통을 친 다음 24.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열 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하

고 일렀다. 25.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열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자
 26.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하고
 말하였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29.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벧파게와 베다니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30.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31.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 32.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33.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 가요?”하고 물었다. 34.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35.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겂옷을 엮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36.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겂옷을 벗어 길에 펴 놓았다. 37.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39.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하고 말하였다. 4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탄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이제 네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 와 44.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상인들을 쫓아 내시며 45.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다. 48.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해설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오래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신 사건을 되새긴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경이로운 일들, 그분의 친절함이나 온화하심에 비해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그분을 냉혹하게 대우한 모습 그리고 열심히 그분을 따라 다니던 군중들이 쉽사리 그분에게서 등을 돌린 것 등을 의아해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속의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면 우리 안에서 쉽게 있어지는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간섭하는 이들을 대단히 미워한다. 만약 누군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충고하고 예상되는 일을 아무리 설명 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 결국 그냥 내버려두는 편에 서있던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소귀에 경 읽기 식인 사람들에 관하여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든 주님의 흠을 잡아서 군중들로 하여금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보여 주시자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미움과 증오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우리는 범죄란 언제나 이기심에서 시작됨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진실이다.

주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 첫날에 그분은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 하는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왕으로서 군중들에게 환영받으셨다. 이 이야기는 네 가지 복음서 모두에서 언급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12-13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던졌다고 전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복음서로부터 주님께서 타신 망아지가 나귀의 망아지 곧 어린 나귀였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을 환영한 군중들은 그분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신들의 왕국을 다시 건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주님을 환영한 그들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분께서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곳은 지상의 왕국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이 하늘나라이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입성하심을 묘사하는 것이다.

본문은 위의 사건이 있기 전 이 사건을 수행코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발생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캐오라고 불리는 키 작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곧 죽음에 놓일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에 대해 제자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임박해 와서 금화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다. 당시의 화폐단위인 므나(mina)란 금이나 은의 수량 단위이다. 이는 오늘날 미화 20불 정도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이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금화로 번역되고 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비유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뒤 그들로 하여금 여태껏 배우고 훈련받은 모든 것을 선용하도록 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선호하는 대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주셨지만 우리가 슬기롭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단지 그에 대해 섭섭해 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슬퍼하셨다. 우리는 제 45절과 46절을 통해 그들이 성전을 돈을 버는 장소로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서기 70년경에 성취되었는데, 그 때 로마인들이 이 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그분은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하셨는가?
- * 어린 나귀는 당시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동물인가?
- * 제자들은 주님께서 타실 나귀등에 무엇을 깔았는가?
- * 그들은 그분 앞의 길에 무엇을 던졌는가?
- * 군중은 뭐라고 주님께 환호했는가?
- * 자캐오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 *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 * 세관장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 그분을 보기 위해 자캐오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 *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는 자신의 인격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 달란트의 비유에서 귀족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 첫 사람은 자기 금화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 그 보상으로 주인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 둘째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 그의 보상은 무엇이었는가?
- * 세째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 주인은 셋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질문 정리

- 1) 본과는 무슨 날에 관한 것인가? 왜 그렇게 불러 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는가?
- 3) 본문 처음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계셨는가?
- 4) 본문에서의 주님의 길 방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어떤 사람의 길 방향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 자캐오의 직업은 무엇인가?
- 6)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7)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는가?
- 8)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는 자신의 인격이 어떠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가?
- 10)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 12)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3) 주님께서 말씀해준 비유는 무엇인가?

- 14) 이 비유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 1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16)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17)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8) 새끼 나귀는 누가 타 본 적이 있는가?
- 19)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귀 위에 타실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 20) 군중들은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 21)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22) 바리사이파인들이 불평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3) 예루살렘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4) 주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 25)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 무엇을 하셨는가?
- 26)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요한복음 12:13) 2) 예루살렘 3) 예리고
- 4) 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5) 세관원 6) 키가 작아서 7)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올랐다
- 8) “어서 내려오너라...” 9)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10)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 11) 불평했다 12) 비유 13) 금화 14) 열 종에게, 금화 한 개씩을...
- 15)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능한 한 선용하라
- 16)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17)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18) 그렇지 않다
- 19) 나귀위에 겹옷을 깔았다 20) 나무가지들을 던졌다
- 21)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22) 돌들이 소리치리라
- 23)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24) 예루살렘의 파멸
- 25) 성전을 깨끗케 하심 26) 기도하는 집

36

부활절(3)

머리말

성주간의 사건을 주로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12

24장: 1.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다. 3.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 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4.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5.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7.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말해주었다. 8.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9.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 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 * 부활절 이전 주일은 뭐라고 부르는가?
- * 주님께서는 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어떤 동물을 타셨는가?
- *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 군중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는가?
- * 주님의 적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 주님의 적들이 그분을 미워한 까닭은 무엇인가?
- * 주님의 친구들이란 누구인가?
- * 자캐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 * 주님께서는 자캐로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직후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위의 사항들은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있어졌던 일들이다. 그런 다음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성주간의 첫 이틀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밤이 되면 그분은 베다니야 마을로 나가셔서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의 집에서 묵으셨다. 목요일 저녁 군중들은 그분이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면서, 그분이 신성모독자여서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바리사이파인이나 성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다니야에 머무르셨고 목요일 밤 과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 열 두 사도들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과월절을 기념하게 된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그 후 모든 기독교인들이 과월절 대신 이 성만찬을 기념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성만찬 때의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몸과 피라고 부르셨다. 빵은 선함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분의 선함이 빵이 우리 몸에 자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빵을 그분의 몸이라고 하신 의미는 주님께서 완전히 선한 분이심으로 그분의 선함만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포도주와 주님의 피는 그분 자신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천국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분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과월절 만찬에서

그분의 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과월절 기념 후 기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유다의 안내를 받은 군중들은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 유다는 병정들에게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유다는 주님께 입맞춤함으로서 그분을 배반했는데, 우리는 주위에서 친구인체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자를 두고 유다와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님께서는 먼저 대성직자 앞에서 심문을 받고 단죄를 받았으며, 그 후 빌라도에게 이송되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주님을 헤로데에게 이송하는 방법을 써서 그분께 형을 언도하는 것을 회피했다. 우리는 여기서의 헤로데가 주님 탄생시에 있던 헤로데가 아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한 헤로데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헤로데는 주님을 희롱했지만,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한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 빌라도도 주님께 죄를 씌우고 싶지 않았으나, 성직자 들과 백성들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금요일이었고, 이렇게 되자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다. 그들은 주님께서 실패하셨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이 자신들의 큰 착오였다고 생각했음에도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심은 실패가 아닌 승리였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으신 이유는 죽음이란 단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하나의 단계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참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이 그분에게 온갖 짓을 다하도록 허용하신 까닭은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을 해할 진정한 능력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 로마 군인들은 그분의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차지했는데, 이 속옷은 통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주님의 시신은 새 무덤 곧 아리마태아 출신의 사람인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모셔졌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놓여 무덤을 봉인했으며, 누군가가 그분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의 입구를 지키라고 군인들에게 명령되었다. 토요일은 히브리인의 안식일이어서 시신은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그분의 시신에 바르려고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6장 3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다음 공부 과정에서 부활 사건에 관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인류의 역사를 바뀌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적들이 그분에게 처참한 짓을 가하며 그분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함을 허용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삶은 자연계에서 시작되며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들로 저 세상에서 살게 될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최적의 때에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 깨어나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 본향에 있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의 선택들에 의해서 결정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과일절은 언제 기념되는가?
- * 과일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마태복음 28:2 참조)
- * 누가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 *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천사는 여인들에게 과거 예수님께 하셨던 어떤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는가?
- *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자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서는 예리고를 지나시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셨는가?
- 2)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3) 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서 자캐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반대했는가?
- 4) 주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6) 주님께서서는 종려주일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7)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 8) 군중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 10) 주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께서는 성주간동안 어디서 묵으셨는가?
- 12) 주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가?
- 13) 그분이 새로 제정한 기구는 무엇인가?
- 14)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15)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 16) 어느 요일에 십자가형이 거행되었는가?
- 17)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모셔졌는가?
- 18) 누가 일요일 아침 무덤에 왔는가?
- 19)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20)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21)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2)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는가?
- 23) 사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24)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25)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질문의 답

- 1) 자캐오 2) 누가복음 19장 참조 3) 그가 미움 받는 세관원이어서 4) 금화의 비유 5)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라 6) 나귀 7) 왕이나 판관이 나귀를 탔기 때문 8) 왕으로서 9)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았기 때문 10) 성전을 깨끗케 하심 11) 베다니아 12) 과월절 음식을 드심 13) 성만찬 14) 가리옷 유다 15) 십자가형 16) 금요일 17) 새 돌무덤에 18) 여인들 19) 향료 20)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졌다 21) 그분은 일어나셨다 22) 그분이 삼일만에 일어나신다고 한 말씀 23) 믿지 않았다 24)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다. 25) 주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머리말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본과를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3-53

24장: 13.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14. 이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나란히 걸어 가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께서 “무슨 일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대성직자 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헌에게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가보았더니 23.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알려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26.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 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29.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30.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32.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 졌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33.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가 보았더니 거기에 열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34.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35.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은 품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어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40.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하시고 45.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46.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47.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된다고 하였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야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51.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52.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 53.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해설

본문의 두 제자들은 사도는 아니었는데, 주님의 추종자로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얼마 전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여인들의 간증을 들었으면서도 매우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인들의 증거를 진실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이 그분께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고, 그분의 부활이 그들이 예상했어야 할 것임도 보여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그들에게 얼마만이라도 보여 주셔야만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6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에 다다를 무렵에서야 비로소 믿을 준비를 갖추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음식을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 그분을 알아보도록 해 주셨다. 본문의 이야기는 새교회인들을 위한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이유는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구약 성서 글자대로의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과 구약 성서에 그분에 관해 전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두 제자들의 이해성을 열어주셨고,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성서의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두 제자들은 단순한 자들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시는 동안 그들의 심정은 뜨거워졌지만, 그 후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기억하거나 받아 쓸 수 없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의 깊은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즉 인간의 이해성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후 다시 성경의 깊은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셨다. 이때에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전달자로 선택된 사람에게 그가 배운 것을 받아쓰도록 하셔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 이 사람이 바로 이마누엘 스웨덴북이다. 전 인류를 위해 말씀이 열려서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이 부활 후 40일 후에 있어졌음을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다른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우리는 부활주일에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가?

- * 주님의 부활을 맨 먼저 안 사람은 누구인가?
- *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갔는가?
- * 그들은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누가 주님께서 일어나셨다고 여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자마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 * 주님께서는 언제 열 한 제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는가?
- * 베다니아에서의 마지막 사건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첫 부활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의 부활을 처음 배운 이는 누구였는가?
- 3)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가?
- 5) 누가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걸었는가?
- 6) 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 7)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주님께 말했다고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9) 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주님께서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11) 이 사건을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이때 사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3)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확증시켜 주셨는가?
- 14) 그분은 무엇을 잡수셨는가?
- 15) 그 다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16)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8) 승천은 어디서 거행되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헤어지셨는가?
- 20) “빵을 떼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던 말씀속의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22) 주님의 부활후의 몸은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음 2) 여인들 3) 헛소리로 4)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 5) 예수님 6)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7) 본문 25절 8) 성경에 있는 그분 자신에 관한 것
- 9)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그분은 사라지셨다 10) 심정이 뜨거워졌다 11)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 12)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함 13)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도 드심 14) 생선과 꿀 15) 성경의 내적 의미
- 16) 능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17)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하늘로 올라가심
- 19) 베다니아 20) 사랑을 나눔 21) 천국의 교리 22) 신성화 되신 신성한 본체

38 네 기수들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계시록 1-5장까지의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네 생물과 봉인된 책 그리고 어린 양을 공부의 중심으로 삼는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6장

6장: 1.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5.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 가운데서 들려 오는 듯했습니다. 7.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8.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1.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12.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빛으로 변하였습니다. 13.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 다오.
17.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해설

누가복음 뒤에 이어지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복음서 안에서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 사랑 받는 제자”라고 불리며, 그의 사도로서의 업적과 그의 후기 생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산 곳이 에페소였으며 소아시아에 건립된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신약성서 지도에서 일곱 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대성직자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했듯이, 이후에도 기독교인이 살았던 지방에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진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는데, 유배될 당시 그의 나이는 약 구십 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자신이 유배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주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이 섬에서였다(계시록 1:12-16). 그리고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받아쓰라고도 말해졌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위한 메시지와 길고도 경이로운 환상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 환상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장차 기독교인의 영혼들에 발생하게 될 것에 관한 예언이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바로 요한이 이렇게 받아 쓴 책이다.

계시록의 첫 장은 일어나셔서 신성화 하신 주님에 관한 환상이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편지의 내용은 각 교회가 서로 달라서 각기 좋은 점과 주님께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신 나쁜 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경고해 주시며, 그들이 회개하여 신실해지면 받게 될 특별한 약속도 해주셨다. 우리는 제 4장에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큰 옥좌와 그 둘레에 배석한 스물 네 명의 장로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다. 네 짐승(생물) 또는 거름들 중 첫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는 송아지 같았으며, 셋째는 사람 같았고 넷째는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일곱 인을 짚어 봉하여 놓은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 뒤따른다. 이 두루마리는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다.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또는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신 분이셨다. 이 두루마리는 곧 말씀이었고, 어린 양은

곧 주님이셨다.

본문에서 우리는 책의 봉인이 떼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다. 요한은 첫 봉인에서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까지 그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요한이 보게 되는 네 마리 말들에 관한 면모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계시록이 쓰인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하는 바를 궁금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스웨덴볼을 통하여 네 마리 말들이 상징하는 바를 밝혀 주셨으므로 이 기이한 환상에 담긴 의미의 일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마리의 말들이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각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과 그렇게 이해한 정도에 따라 그들의 삶과 세상에 미치게 될 결과를 상징하고 있다. 흰말이란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상징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계시록 19장 11-13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열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졌었는지를 재고해 보자. 다섯째 봉인이 떼어짐이란 말씀속의 진정한 의미가 선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말씀이 열려질 때 그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여섯째 봉인이 떼어짐에서는 자신의 악한 길만을 고집 하느라고 주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와 동일한 계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이 기수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 * 무기 외에 어떤 것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 * 그는 무엇을 하려고 나아갔는가?
- * 둘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가?
- * 셋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이 기수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달았는가?
- * 그는 무엇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는가?
- *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이 기수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 어떤 권한이 이 기사에게 주어졌는가?

질문 정리

- 1)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2) 이 책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3) 요한이 본 첫 번째는 무엇인가?
- 4) 그분은 누구들을 위해 메시지를 주셨는가?
- 5) 심판의 큰 상징물은 무엇인가?
- 6) 누가 옥좌 둘레에 앉아 있었는가?
- 7) 누가 옥좌 위에 앉아 계셨는가?
- 8) 어떤 생물이 이 환상에서 나타났는가?
- 9) 옥좌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 10) 이 책은 무엇인가?
- 11) 그 책에는 몇 개의 봉인이 있었는가?
- 12) 누가 그 봉인을 뗄 수 있었는가?
- 1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14)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을 보았는가?
- 15)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엇을 보았는가?
- 16)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질문의 답

- 1) 계시록 2) 사도요한 3) 부활하신 주님 4) 일곱 교회
- 5) 옥좌 6) 24 장로들 7) 주님(어린 양) 8) 거룩들 9) 두루마리, 책
- 10) 말씀 11) 일곱 12) 주님(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어린 양) 13) 흰말
- 14) 붉은, 검은, 푸르스름한 말 15)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 16) 지진 등등

39

일곱째 봉인

머리말

본문의 내용은 상응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지는지도 모른다.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문 사항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8, 9장

8장: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 갔습니다. 5.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 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삼분의 일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었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 있다!”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 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3.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4.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9.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찼고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1.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2.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 올 것입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6.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효가 이 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 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흥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말았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20.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21.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미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해설

우리는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요한의 환상이 완성되는 것으로써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의 완성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진실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씀이 완전히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9장 39-41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것의 잘못됨을 느끼지도 못한 채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일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그 일들이 잘못된 것임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잘못될 것임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거나 용서하며 혹은 용서받는 형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끝을 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임을 빨리 알면서 행하게 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 채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추려하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그 이유는 자신의 본심을 남들이 알게 되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혼한 습성 중의 하나는 남에게 칭찬받기를 즐기면서 자신이 상당히 잘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둔했는가를 알도록 우리 안에 빛을 비추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쌓아 놓은 우리 속에 든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속성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 본성의 파괴가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진 것들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자신의 선함과 지혜에서 나온 사상들에 관한 것임을 상기해 보면 본문 8장과 9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시록 제 7장에서는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 모든 선한 사람들이 장차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에 의해 인장이 찍혀지고 있다. 스웨덴북은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있었던 침묵이란 지상의 교회 속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천사들이 보게 될 때 있게 되는 그들의 경악감이라고 설명한다.

말씀에서 나팔소리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선포되는 모습을 상징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직전 발생했던 일을 알 수 있다. 일곱 번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일곱 개의 봉인이 떼어지는 모습처럼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됨을 뜻한다. 주님께서 이러한 광경들을 마치 하나의 입체 영화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면할 수 없는 마음상태를 형성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해 보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9장 마지막 두 구절을 특별히 주목하도록 하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이기적이며 악한 길로 완전히 빠져 있어서 재난이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걸어 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길을 바꾸고자 하는 결심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어렸을 때는 나쁜 습관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도 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타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함과 이기적이지 않은 것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보자.

- * 요한은 하느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 그 천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 * 그 외의 천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 그 천사가 불이 가득 담긴 향로를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제 8장과 9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나팔소리가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일곱 봉인을 가진 책은 어떤 책인가?
- 2) 누가 그 봉인을 떼었는가?
- 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4) 둘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5)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승마자는 무엇으로 불렸는가?

- 6)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7)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8)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0) 요한은 하나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11) 그 천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2) 여덟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천사는 향료에 무엇을 담았는가?
- 14) 그 다음 그는 무엇을 가지고 향료를 채웠는가?
- 15)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6) 본문에서 몇 개의 나팔이 불어졌는가?
- 17) 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18)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 19) 끝없는 지옥 구렁이의 악마에게 어떤 두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가?
- 20)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회개했는가?
- 21) 본문은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22)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가도록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주님 3) 흰말 4) 붉은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5) 죽음 6) 제단 아래에 있는 선한 자들 7) 악한 자들 8) 바위가 자기들을 숨겨주도록 9) 침묵 10) 일곱 11) 나팔 12) 금향료 13) 향 14) 제단 불 15)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16) 여섯 17) 우박, 불덩어리, 큰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별이 떨어지고, 태양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18) 썩 19) 아바돈, 아폴리온(파괴자) 20) 회개하지 않았다 21) 첫 기독교 시대 안에 있던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파괴 22)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머리말

말씀의 전체적 윤곽을 되새겨 보면서 본장을 진행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정점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9-27절

21장: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 한째는 청옥으로, 열 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해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짐이란 여러 종류의 파멸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직면하게 될 때 과거에 자신의 심정과 지성 속에서 커가도록 눈감아 준 나쁜 것들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앞서 우리는 파괴란 이런 악한 것들이 야기하게 되는 일들임을 배웠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이기적 바램이나 생각들의 본연의 상태가 확연하게 드러나 악한 자가 선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지옥이란 이기심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 다음 선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고 즐기게 된다.

제 3권을 마무리 짓는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강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성은 성경 전체가 우리를 이끌어 향하게 하는 이상향인 것이다. 성경속의 사람들이 그 성을 그들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을 모든 예배의 중심지로서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상에 있던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고, 뒤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 역시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다시 파괴되고 말았다. 어찌됐든 수세기를 거치는 세월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명확하게 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란 영적이며 영원한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라는 뜻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화롭고 행복한 심정상태,

즉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배워 그에 따라 살려고 하면 있게 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나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새 예루살렘이란 이 성의 이름은 주님께서 말씀을 여시는 역사인 재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말씀의 더 깊은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요한의 환상 속에서 봉인이 떼어져 모든 것이 질서대로 놓일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도성이 내려오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데, 이에 대해서는 차차 성경 공부를 더해 가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줄거리를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16절과 17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네모가 반듯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신실하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혹은 그 사람이 항상 타인에게 정직하며 공평함을 의미함으로써,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표준에 대고 사람을 “측량”해 본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거룩한 도성을 재는 것도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말해진다. 선한 사람은 주님의 특사 또는 천사로서 네모반듯할 것이다. 네모반듯한 자란 주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배운 진리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인격에 비례하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높이이다.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 도달함으로써 인격속의 선함과 지혜 그리고 강함을 얻게 된다.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쓰여 지게 되는가와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에 거주지를 정하는 사람들 틈에 어떻게 속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거룩한 성을 보기 위해 요한은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 이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 * 도성의 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 *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었는가?
- * 주춧돌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 * 도성과 도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었는가?
- * 주춧돌은 무엇으로 꾸며져 있었는가?
- * 도성에 있는 성전은 무엇인가?

- * 도성의 빛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 * 누가 이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 * 누가 이 도성에 들어가는가?

질문 정리

- 1)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그 도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 3) 그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 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5)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이 있는가?
- 6) 그 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 7)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는가?
- 9) 주춧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 10) 그 주춧돌은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가?
- 11) 그 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12) 성안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13) 그 도성을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가?
- 14)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5)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6)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7)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측량했는가?
- 18) 그 도성의 가로 세로는 어떠했는가?
- 19)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20) 우리 교회가 본문을 특별히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21) 성과 성의 길이 순금으로 되었다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22) 누군가가 “당신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23)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몰라서 혼동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거룩한 성 2) 하느님, 하늘로부터 3) 새 예루살렘 4) 금 5) 12
- 6) 이스라엘 지파 7) 벽옥 8) 12 9) 사도 10) 보석 11) 금
- 12) 주님이 성전이다 13) 하느님의 영광 14) 악한 사람
-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힌 자들 16) 선한 삶을 영위했음
- 17) 금자 18) 네모반듯했다 19) 선한 인격은 네모반듯하기 때문
- 20)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주기 때문
- 21)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랑하는 길을 걸도록 하시기 위함
- 22) 새 예루살렘 교회 23) 계시록 21-22장을 숙독하자